

제13회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머니 리벨런싱 : 돈의 길을 바꿔라
- 생산적 금융으로 여는 성장의 통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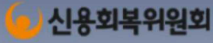
발표자료



발표자료 안내

- 본 자료집은 정보 공개 및 배포에 동의한 연사의 발표 자료에 한하여 수록되어 있습니다. (일부 연사의 자료는 대외비 및 저작권 사유로 제외되었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 본 자료 내 텍스트, 이미지, 데이터 등 모든 지적재산권과 권리는 발표자 또는 주관사인 이투데이에 있습니다.
- 본 자료는 참석자 개인의 참고 및 학습 용도로만 제공되며, 목적 외에 사전 협의 및 동의 없이 복제, 외부 배포, 화면 캡처, 퍼블리싱, 2차 가공 등 무단 활용 엄격히 금지합니다.
- 또한 소셜 미디어(SNS),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 인터넷 공간에 무단 게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됩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정보 및 전망은 행사 개최일 기준 발표자의 개인적 견해와 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며,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최 및 주관사 측은 본 자료의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참석자 본인의 자료 활용 결과나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미소금융, 다시 국민경제의 성장 사다리로



목차 CONTENTS

- 01 사람을 다시 경제 안으로 연결하는 기관
- 02 우리나라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자영업자
- 03 포용적금융·생산적금융으로서의 미소금융
- 04 다시 뛰어야 할 미소금융
- 05 Q&A

01 — 사람을 다시 경제 안으로 연결하는 기관

01. 사람을 다시 경제 안으로 연결하는 기관

사람을 다시 경제 안으로 연결하는 금융

||

포용적금융 = 누구도 금융 밖으로 밀려나지 않게 하는 금융

+

생산적금융 =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금융

포용적금융·생산적금융을 구현하는 기관

시민금융진흥원 (2016년 출범)

-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 지원
- 생활안정자금, 고금리대안자금, 창업·운영자금, 자산형성, 소액보험, 금융교육, 컨설팅, 취업지원, 복합지원 등
- 정책서민금융 약 **745만건** 공급
- 정책서민금융 누적 약 **60조원** 공급
- 정책서민금융 이용 차주 수 약 **218만명**

(*16.9월 ~26.2월)

신용회복위원회 (2002년 출범)

-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등
- 채무조정, 소액금융, 신용교육, 컨설팅, 복합지원, 불법사금융예방신고 등
- 개인채무조정 약 **254만건** 지원
- 개인채무조정 약 **70조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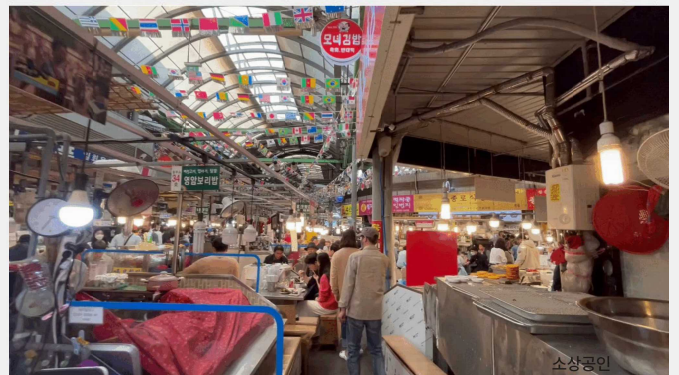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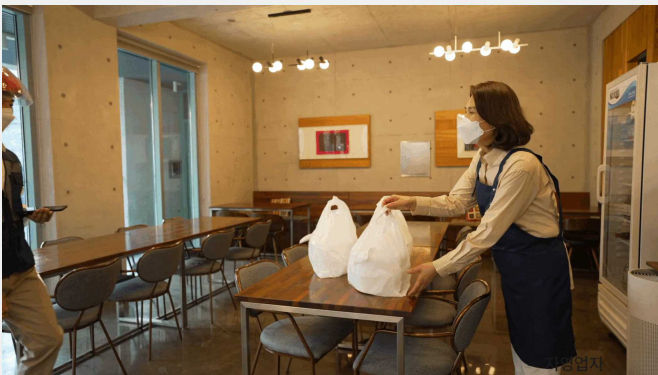
(*02.10월~26.1월)



02 — 우리나라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자영업자

02. 우리나라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자영업자

대한민국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자영업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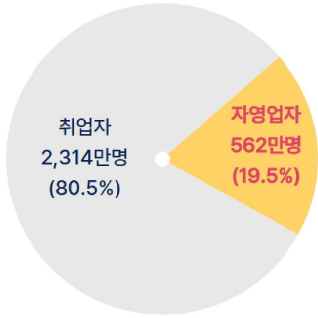


02. 우리나라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자영업자

자영업자는 지역경제를 유지시키는 근간

경제활동인구 중 자영업자 수·비중 (25년)

경제활동인구 중 약 20%를 차지하는 자영업자



< 국가데이터처, 2025년 경제활동인구조사 >

전체 기업 중 소상공인 비중 (23년)

기업종류	기업수 (만개)	종사자수 (만명)	매출액 (조원)
대기업	1.0 (0.1%)	464.9 (19.6%)	405.8 (55.1%)
중기업	13.5 (1.6%)	444.5 (18.7%)	149.2 (20.3%)
소기업	25.7 (3.1%)	377.3 (15.9%)	53.2 (7.2%)
소상공인	790.7 (95.2%)	1,090.0 (45.9%)	127.7 (17.4%)
계	830.9 (100.0%)	2,376.7 (100.0%)	735.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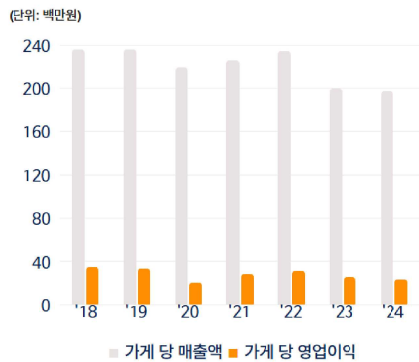
<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기준 「중소기업기본통계」 (25.9월) >

02. 우리나라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자영업자

생계 유지조차 버거운 국내 자영업자

가게 당 매출액 및 영업이익 ('18년~'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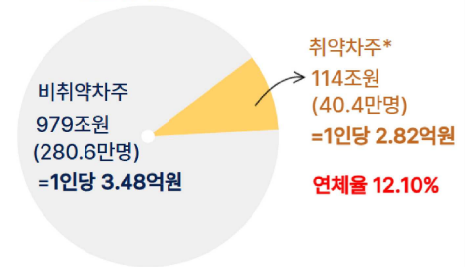
'24년 가게 당 연간 영업이익은 2천만원(월 167만원) 수준



<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말 기준 소상공인 실태조사 ('26.3월) >

자영업자 대출 현황 ('25년 3분기)

자영업자 차주 대출 1,093조원 (321만명) = 1인당 3.40억원
평균 연체율 1.86%



*취약차주: 다중 채무자이면서 소득 하위 30% 이하이거나 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자

< 한국은행, 2025년말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 ('26.3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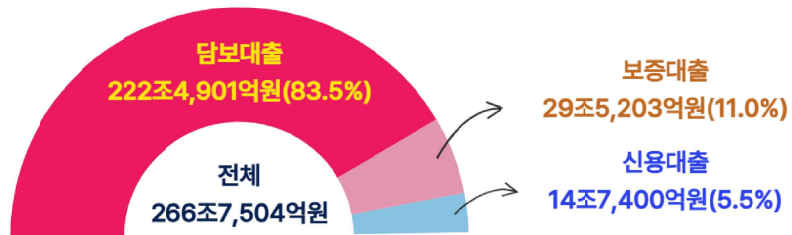


02. 우리나라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자영업자

취약한 금융환경에 놓인 자영업자

- 개인사업자 대출의 80%는 여전히 담보에 의존 -

4대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 구성 ('26.1분기말 기준)



< 매일경제, '소상공인들 은행 문턱 높네... 대출 80% 여전히 담보 의존' >

금융당국의 순수 신용대출 확대 유도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여전히 담보 위주 대출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

02. 우리나라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자영업자

'생산적금융 원년' 기업대출 15조 늘렸지만 중소기업 5조, 자영업자 1조뿐

5대 은행 기업대출 증가분(1~3월)

'25년말 대비 증가분 15조484억원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합산 (자료: 각 사)

02. 우리나라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자영업자

예방적 금융지원은 사후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투자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1차 회의

[일시] 2026. 1. 8.(목) 09:30 [장소]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03 포용적금융 생산적금융으로서의 미소금융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
국민성장판도가 쏠라게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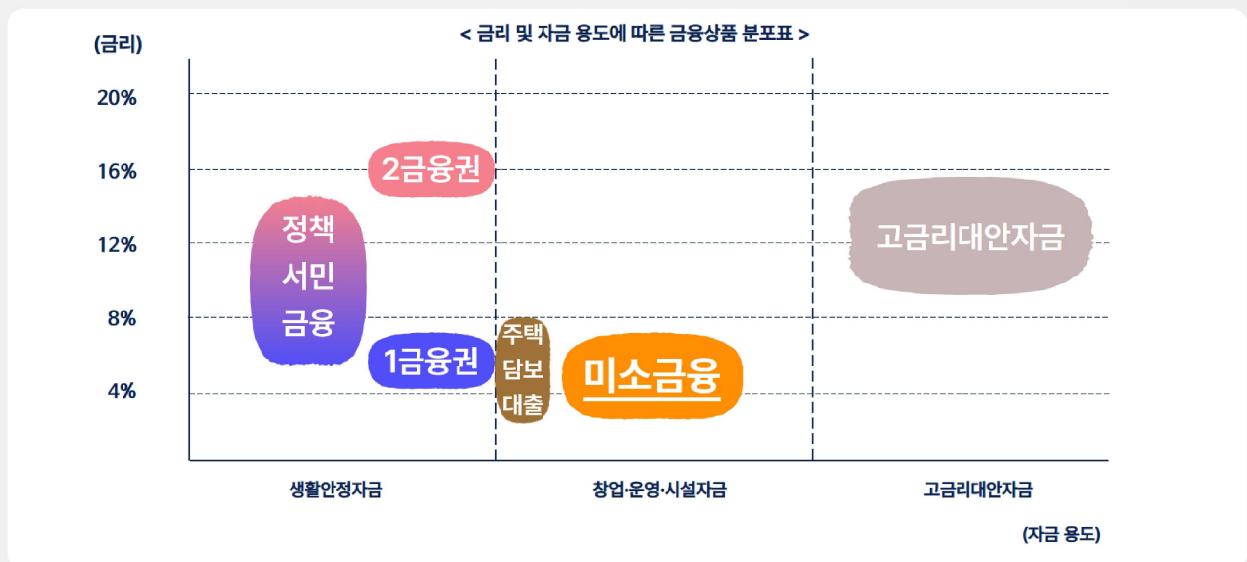
03. 포용적금융·생산적금융으로서의 미소금융

빛의 악순환 vs 금융의 선순환



03. 포용적금융·생산적금융으로서의 미소금융

미소금융은 저금리로 경제활동과 재기를 지원



03. 포용적금융·생산적금융으로서의 미소금융

영세자영업자들을 지탱해온 미소금융

디지털금융의 발전 속에
현장 대면 상담만을 고집해온...



03. 포용적금융·생산적금융으로서의 미소금융

기업과 은행 등이 함께 만든 금융안전망

- 8,642억원 자원 출연, 163개 지점 운영 ('26년 4월 기준) -

구분	세분	출연기관	설립기관	출연(억원)			조직 지점수(개)	실적(억원)	
				계획	현황	예정		대출누계	대출잔액
지점기부	기업	삼성	삼성미소금융재단	3,000	1,800	-	24	7,221	1,167
		SK	SK미소금융재단	2,000	1,200	-	20	5,406	690
		LG	LG미소금융재단	2,000	1,200	-	15	5,029	551
		현대차	현대차미소금융재단	2,000	1,200	-	11	4,107	497
		포스코	포스코미소금융재단	500	280	-	4	523	13
		롯데	롯데미소금융재단	500	270	-	2	703	17
		소계	6	10,000	5,950	-	76	22,989	2,935
	은행	신한	신한미소금융재단	500	700	1,000	10	2,467	237
		IBK기업	IBK미소금융재단	300	655	-	21	2,479	221
		우리	우리미소금융재단	500	537	1,000	8	2,179	141
		KB국민	KB미소금융재단	500	500	1,000	8	2,564	237
하나		하나미소금융재단	200	300	1,000	8	1,172	155	
	소계	5	2,000	2,692	4,000	55	10,861	991	
일반기부	일반기부금 등*	지역법인	-	-	-	32	12,297	2,299	
계	-	-	12,000	8,642	4,000	163	46,147	6,225	

* 지역법인 대출 재원의 경우, 출연금 성격에 해당하지 않아 미기재 처리

03. 포용적금융·생산적금융으로서의 미소금융

골목 경제를 굳건히 지키는 미소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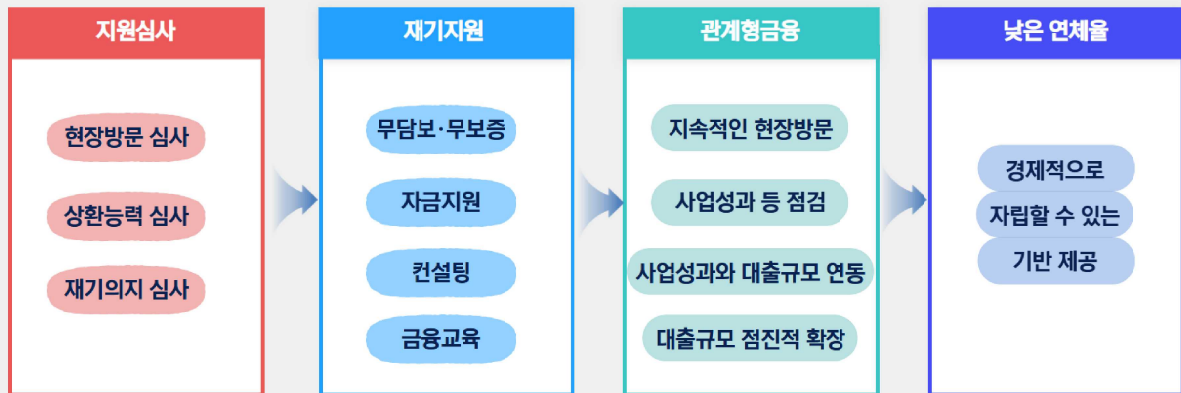
- 거대한 기업이나 첨단산업 투자만이 생산적금융은 아닙니다 -

생산적금융(A)	구분	미소금융(B)	미소금융, 17년간('10~'26년 4월) 397,971건, 4조6,147억원 지원		
대기업·중소기업 (첨단산업·신산업·공장 등)	대상	소상공인	구분	지원건수(건)	지원금액(억원)
40만개	기업수 (A x 19.6)	790만개	창업자금	37,851	6,198
1286만명	종사자수 (A x 0.84)	1,090만명	운영자금	270,251	31,874
608조원	매출액 (A x 0.21)	127조원	시설개선자금	6,951	833
80.5조	공급목표(2026년) (A x 0.005)	0.4조원	생계자금 등	82,918	7,242
			계	397,971	46,147

* 민간사업수행기관 및 전통시장 실적 제외

03. 포용적금융·생산적금융으로서의 미소금융

누구도 금융 밖으로 밀려나지 않게 하는 포용적금융, 미소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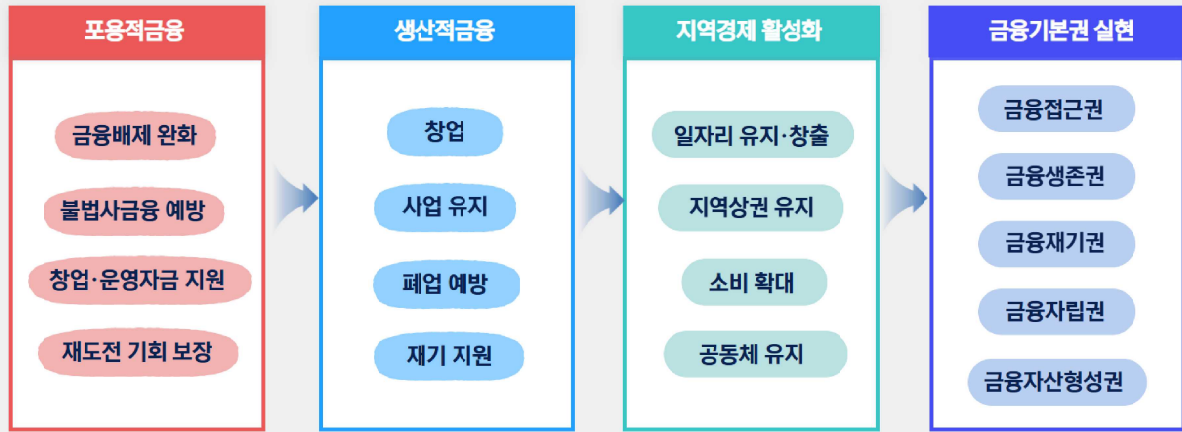


제도권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자·영세자영업자

03. 포용적금융·생산적금융으로서의 미소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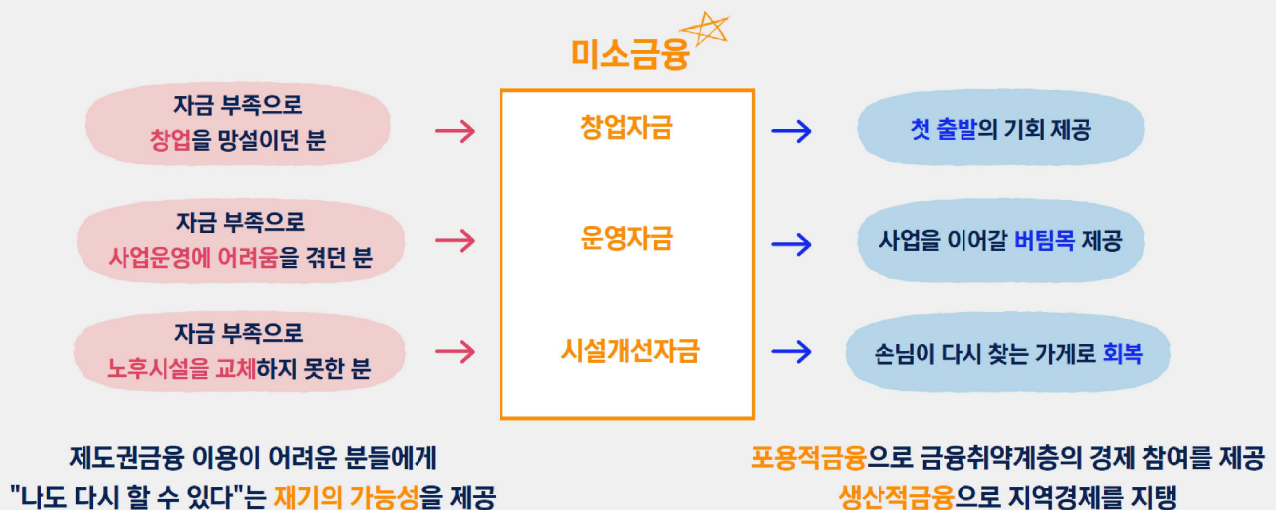
지역 경제를 살리는 생산적금융, 미소금융

- 미소금융 성과는 대출실적만으로 평가할 수 없어 -



03. 포용적금융·생산적금융으로서의 미소금융

17년간 미소금융을 통한 수많은 재기 사례



03. 포용적금융·생산적금융으로서의 미소금융

한국 유일의 관계형금융, 미소금융

— 데이터는 과거를 보여주고, 사람은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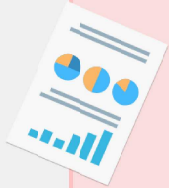
거래형 금융

확실적 심사
과거 실적
정량 평가
자동 심사

신용 점수
소득
연체 이력
금융 정보

PB

가장 고도화된 금융 서비스
고객의 자산 증식, 절세 등



미소금융 || 관계형금융



관계형 금융

가능성 심사
미래 가능성
종합 평가
현장 심사

사업 의지
재기 의지
가족 상황
현장 상황

관계형 금융

복잡한 현실의 문제 해결
생계, 기존채무, 신용, 취업, 복지
금융, 가정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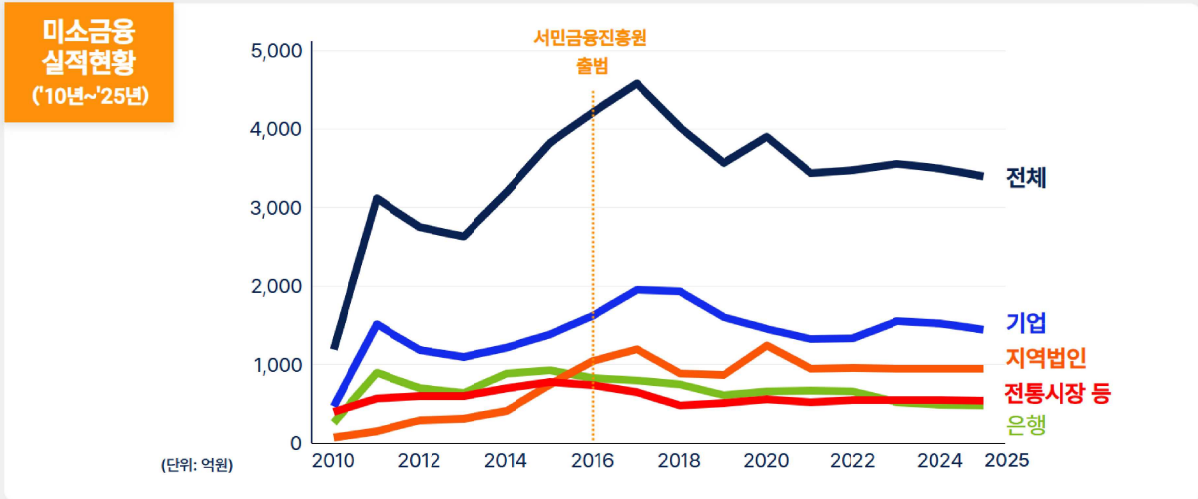
04 — 다시 뛰어야 할 미소금융



04. 다시 뛰어야 할 미소금융

최근 미소금융 지원실적은 감소 추세

—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사다리 약화는 더 큰 사회적비용으로 이어질 우려 —



04. 다시 뛰어야 할 미소금융

미소금융 3년 내 年 공급규모 6,000억원으로 확대

— 청년미래이음·미소금융운영자금 등 금융소외자 대출상품 4종 출시 —

미소금융 공급 2배 확대

- 연간 공급규모를 3,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확대
- 34세 이하 청년대출 비중 10%에서 **50%**로 확대
- 재단별 공급목표를 설정하고, 달성률을 정기 공시



청년·취약계층 맞춤대출 4종 출시

- 미취업·취업초기 청년에게 **청년미래이음** 대출 출시
* 연 4.5% 금리, 최대 500만원
- **청년자영업자 운영자금** 대출한도 확대
* 대출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
- 지방거주 청년 자영업자 **이자지원** 확대
* 이자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지자체에 거주하는 미소금융 이용 청년 자영업자에게 1%p 추가 이자 지원
-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출시
* 연 4.5% 금리, 최대 500만원

04. 다시 뛰어야 할 미소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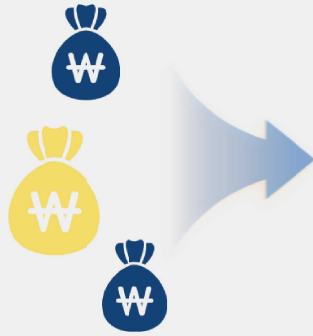
참여 기관들의 연이은 미소금융 출연 확대

기존 참여기관

 KB 국민은행 1,000억
 신한은행 1,000억
 우리은행 1,000억
 하나은행 1,000억

참여 요청기관(협의 중)

 IBK 기업은행
 NH농협은행



구분	출연기관	계획(억원)	출연(억원)	추가(억원)	비고
기업	삼성	3,000	1,800	-	-
	SK	2,000	1,200	-	-
	LG	2,000	1,200	-	-
	현대차	2,000	1,200	-	-
	포스코	500	280	-	-
	롯데	500	270	-	-
	소계	10,000	5,950	-	-
은행	신한	500	700	1,000	-
	IBK기업	300	655	-	협의 중
	우리	500	537	1,000	-
	KB국민	500	500	1,000	-
	하나	200	300	1,000	-
	NH농협	-	-	-	협의 중
	소계	2,000	2,692	4,000	-
계	11	12,000	8,642	4,000	-

04. 다시 뛰어야 할 미소금융

향후 17년, 미소금융의 발전 과제 (이투데이 기획 취재 제언)

— 대출 이후 상담·심사·사후관리 역량 확충 관건 —

— 상환 유지, 신용 개선 등 질적 지표 병행해야 —

미소금융 활성화, 공급 확대만으로는 부족
전문가들 "자립 성과까지 봐야"

핵심은 '얼마나 공급했는가'보다
'자립으로 이어졌는가'

1 현장 인프라 확충

- 상담·심사 인력 보강
- 사후관리·상환관리 강화
- 재무상담·채무조정 연계

2 질적 성과 지표

- 상환 유지율
- 신용 개선 여부
- 제도권 금융 이동
- 영업 지속 여부

3 상품 설계 원칙

- 상환 가능성 전제
- 청년·취약계층 상품 세밀 설계
- 생활비 지원 넘어 자립 연결

< 이투데이 "공급 두 배 늘린다지만... 전문가들 "현장 인프라가 성패 가른다"
[미소금융의 재발견] (2026.6.4.) 기사 발췌 >

04. 다시 뛰어야 할 미소금융

미소금융의 다음 17년

17년 전

금융소외계층에게 금융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포용적금융과 생산적금융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향후 17년

제도권금융으로 연결하는
금융사다리 역할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누구도 금융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다시 뛰어야 할 미소금융

04. 다시 뛰어야 할 미소금융

작은 톱니바퀴 하나하나가
우리 경제를 움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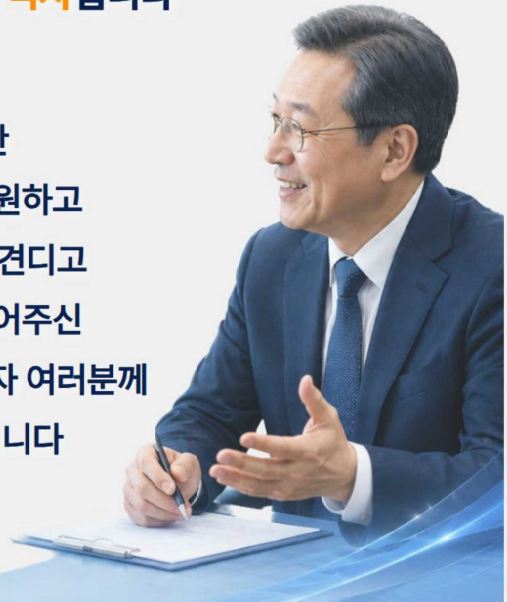


04. 다시 뛰어야 할 **미소금융**

포용적금융과 생산적금융의 현장을 만들어온
여러분이 곧 **미소금융의 역사**입니다



지난 17년 동안
창업의 첫걸음을 응원하고
폐업의 위기를 함께 견디고
재기의 가능성을 믿어주신
전국 미소금융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5. **Q&A**



'26년 글로벌 매크로 인사이트

- 트럼프 2.0의 혼란과 매크로 경제의 변화 -



1. 이란 전쟁의 경과(1)

호르무즈 해협 관련 주요 일지

호르무즈 해협 관련 주요 일지

2월 28일(현지시간) 미국-이스라엘의 공습 받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CG), 호르무즈 해협 봉쇄



- **3월 21일(미국 동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란을 향해 48시간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 초토화하겠다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언급
- **3월 23일**
트럼프, 앞서 예고한 이란 발전소 공격 5일간 유예
- **3월 26일**
트럼프, 4월 6일까지 이란 공격 유예 연장
- **4월 5일**
트럼프, 이란과의 협상 시한 하루 연기
- **4월 7일**
미국-이란, 2주간 휴전 동의. 2주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통행 가능, 미국은 대이란 공격 중단
- **4월 11~12일**
미국-이란, 1차 종전 협상-결렬
- **4월 13일**
미국, 호르무즈 해협 중심 대이란 해상 봉쇄(외부에서 이란으로 들어오는 전쟁 물자 보급 차단). 이란 강력 반발
- **4월 17~18일**
이란,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일시 해제-완전 개방 후 재봉쇄
- **4월 21일**
미국-이란, 2차 종전 협상 예상했으나 불발. 트럼프, "협상 종결시까지 휴전연장". 이란 반발
- **4월 28일**
미국-이란 전쟁 두달째
- **5월 3일**
트럼프, 호르무즈에 갇힌 선박 빼내는 '해방 프로젝트(프로젝트 프리덤)' 발표. 이란, 미국의 호르무즈 통행 지원 계획에 휴전 위한 간주 경고

프로젝트 프리덤
미군, 걸프만-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 구출-통행지원. 중동시간 4일 오전부터 시행 예고

연말뉴스 자료: 외신 종합

이재윤기자 20260504

자료 : 블룸버그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 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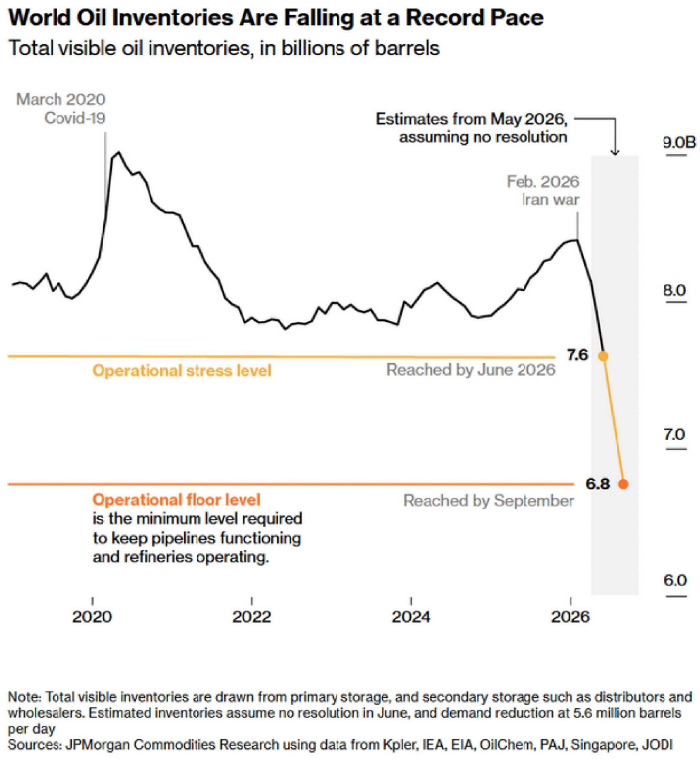
이스라엘·이란 재충돌 일지

- **6월 3일** 미, 이스라엘·레바논 휴전 합의 발표
- **4일** 이스라엘·헤즈볼라 각각 합의 불만 표시
- **5일** 이스라엘, 레바논 남부 대대적 공습
- **7일** ·이스라엘,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공습
·이란, 이스라엘 겨냥 미사일 발사
- **8일** ·이스라엘, 이란 군시설·석화단지 보복 타격
·이란, 이스라엘 공군기지 공격

자료 : 블룸버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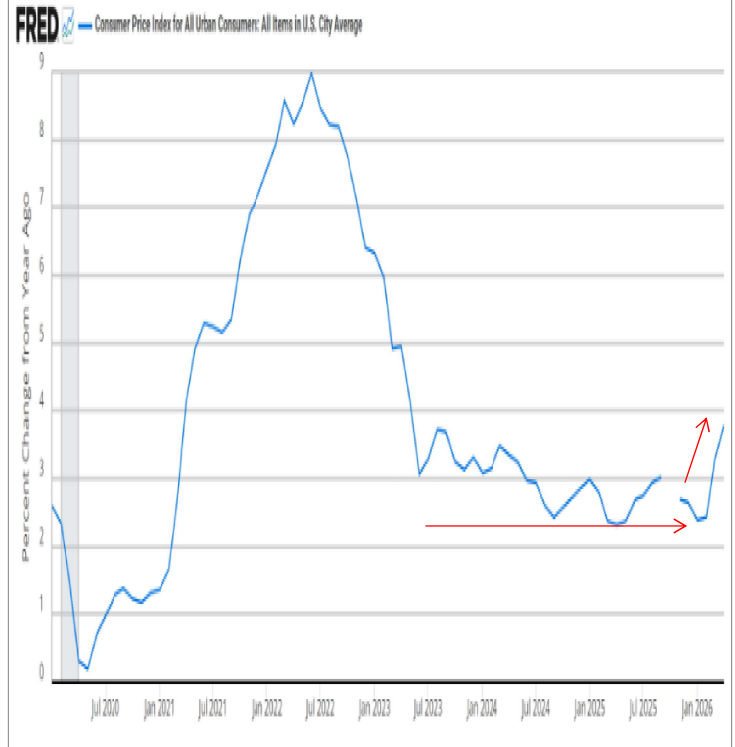
1. 이란 전쟁의 경과(1)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원유 재고



자료 : JPMorgan, Google search

재차 반등하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자료 : Fred

1. 이란 전쟁의 경과(2)_단기전의 기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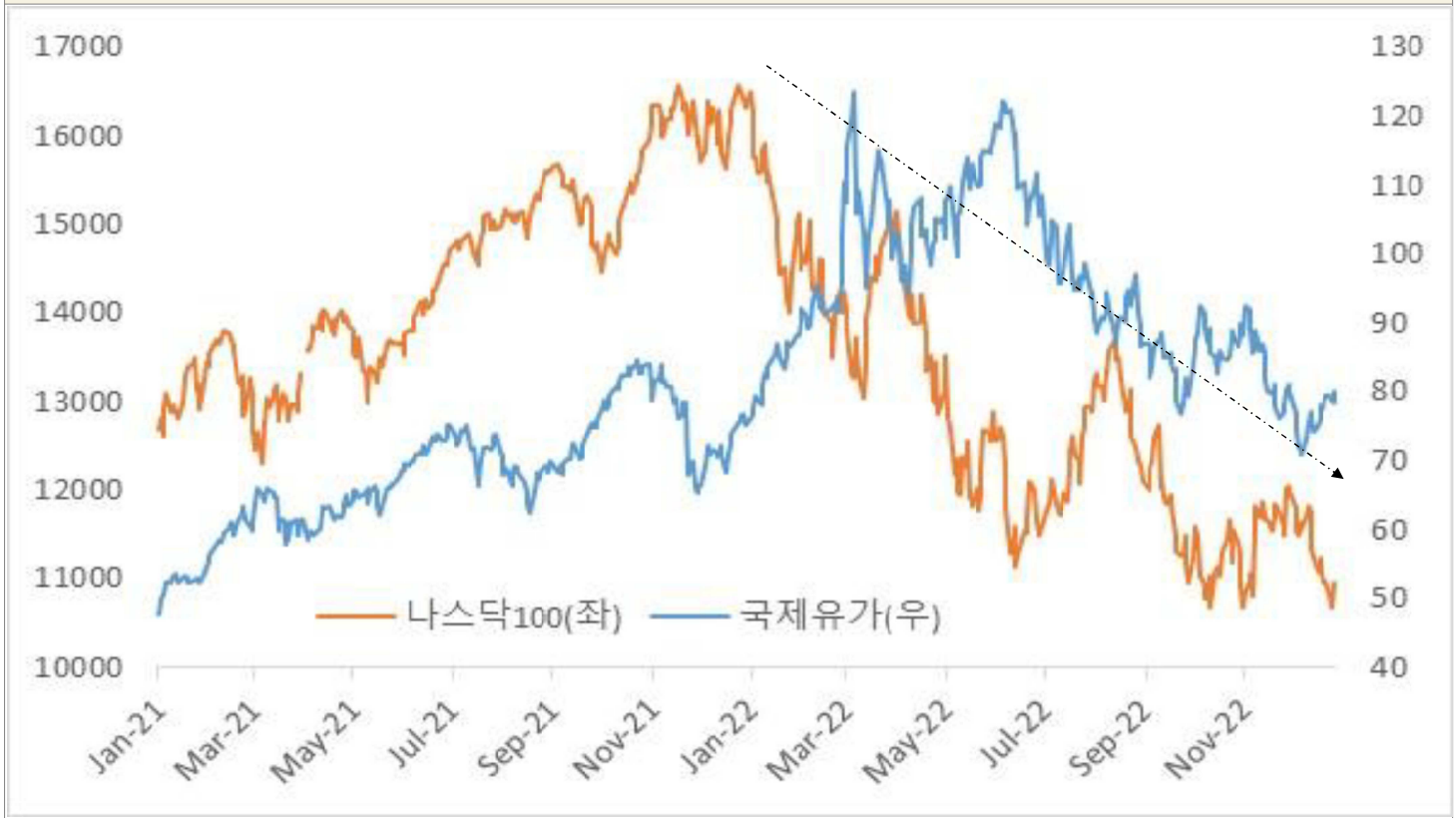
2023년 이후 S&P500지수 및 국제유가 추이



출처 : 블룸버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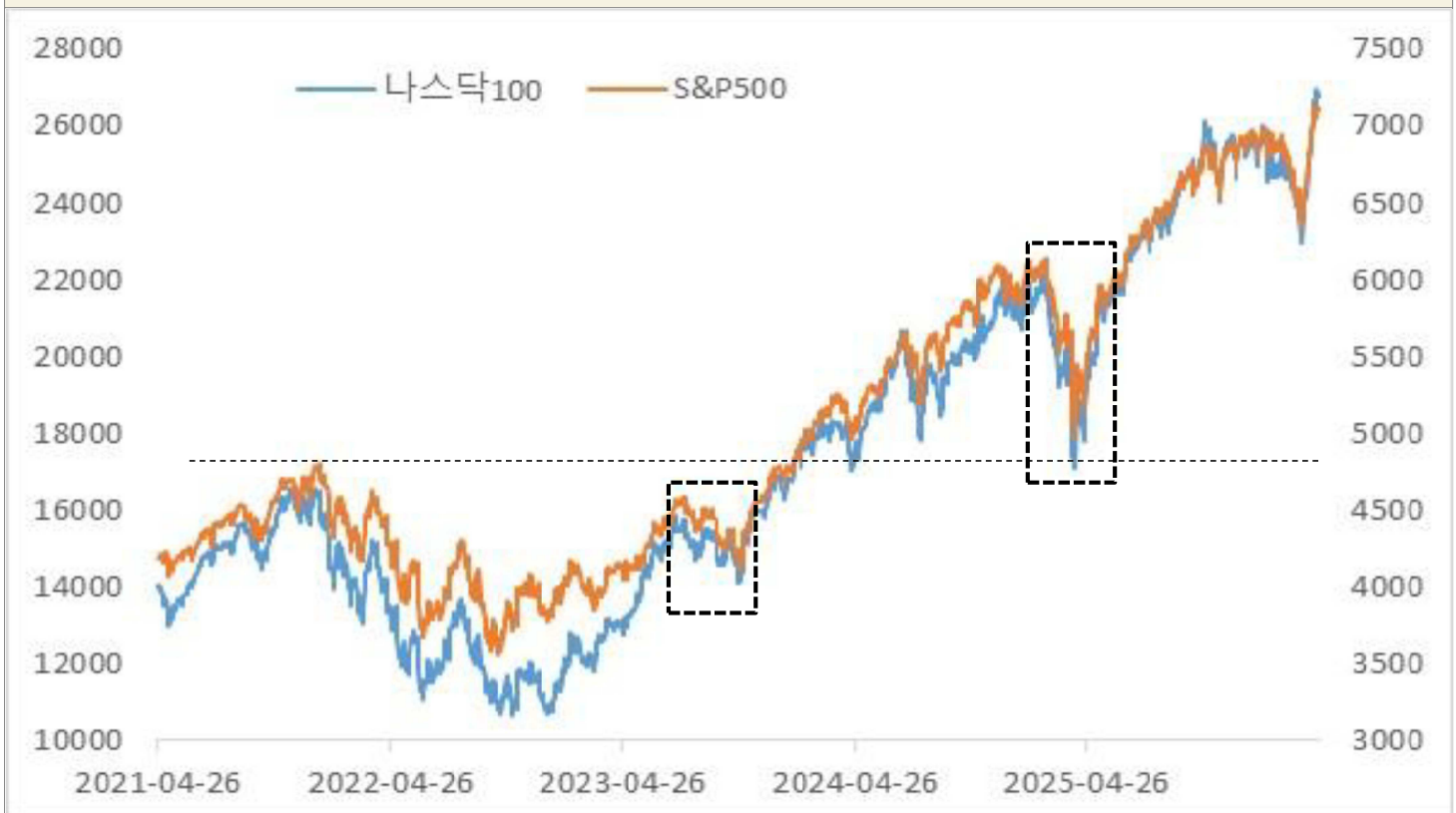
1. 이란 전쟁의 경과(2)_장기전의 두려움

러-우 전쟁을 전후한 시기 나스닥 100지수와 국제유가 추이



1. 이란 전쟁의 경과(2)_긴호흡에서의 변화

러-우 전쟁을 전후한 시기 나스닥 100지수와 국제유가 추이



1. 이란 전쟁의 경과(3)_에너지 공급망의 변화

국제유가 추이(24년 1월부터)



출처 : 블룸버그

1. 이란 전쟁의 경과(3)_에너지 공급망의 변화

전쟁 이후 유가에 대한 주요 외신 전망

- “IEA총장 ‘호르무즈 봉쇄로 사상 최대 에너지 안보 위협’”(뉴시스, 26. 4. 24)
- “美 국방부 ‘기회 제거에 6개월’ 고유가 장기화하 나”(서울경제, 26. 4. 23)
- “‘비싸도 지금 사야하나’... 고유가 장기화 관측에 정유업계 고민”(동아일보, 26. 4. 22)
- “트럼프 ‘고유가, 한동안 감내해야’... 브렌트유 105 달러 돌파”(뉴시스, 26. 4. 24)
- “전쟁 끝나더라도 고유가는 지속.. 내년 말에나 이전 수준 회복할 것”(파이낸셜뉴스, 26. 4. 14)
- “김정관 ‘전쟁 끝나도 에너지 정상화 시간 걸려.. 공급망 전략 전환 필요’”(아시아경제, 26. 4. 19)
- “전쟁 끝나도 유가 안떨어진다.. 석유 CEO들의 경고”(파이낸셜뉴스, 26. 3. 29)

자료 : 언론종합

원유 운송비 관련 이슈들

- “호르무즈 요금소 진짜 들어서나... 고립된 해운사들 전전긍긍”(뉴데일리, 26. 3. 31)
- “호르무즈 풀린 뒤 1척당 60억 ‘운송비 폭탄’... 화주-선사 소송전 갈 듯”(매일경제, 26. 4. 8)
-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글로벌 LNG 용선료 600% 폭등”(가스신문, 26. 3. 26)
- “‘배 보험료 최대 10배 폭등’ 호르무즈 봉쇄에 해상물류비 충격 확산”(더구루, 26. 4. 19)
- “미국 에너지 수출 신기록..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대체재 부상’”(KBS, 26. 4. 26)
- “호르무즈 대신 ‘파나마’로... 전쟁에 몸값 뛰는 미국산 에너지”(연합뉴스, 26. 4. 24)
- “IEA 수장 ‘원유 수출 제한 / 비축 자제해야’”(세계일보, 26. 4. 6)

자료 : 언론종합

1. 이란 전쟁의 경과(3)_에너지 공급망의 변화

재고 비축의 시대	미국 에너지 수요 증가
<p>“IEA 수장 ‘원유 수출 제한 / 비축 자제해야’(세계일보, 26. 4. 6)</p> <p>“‘사재기’로 변진 에너지 비축 경쟁... 유가 불안 / 불평 등 키운다”(연합뉴스, 26. 4. 23)</p> <p>“‘원료 끊기면 끝장’.. 기업들 재고 쌓아두는 값비싼 전략 택했다”(한국경제, 26. 4. 2)</p> <p>“유가보다 더 센 ‘LNG 쇼크’ 온다... 수입 의존 높은 한 직격탄”(이투데이, 26. 3. 30)</p> <p>“항공유 재고 6주분 남은 EU, 美에 SOS”(파이낸셜뉴스, 26. 4. 22)</p> <p>“전세계 원유 확보 비상.. 현물 시장 서 ‘물량 쟁탈전’”(이투데이, 26. 4. 12)</p> <p>“중소기업 희비 가른 ‘원료 재고’”(매일경제, 26. 4. 15)</p> <p>“‘세계화는 끝났다’ 두 손 든 현대차.. ‘공급망 위기’ 탈출구가 안보인다”(매일경제, 26. 4. 25)</p> <p>“대만 경제장관 ‘美 원유 구매 비중 확대.. 안전 비축량 유지’”(연합뉴스, 26. 4. 22)</p>	<p>“미국·이란 전쟁으로 세계 에너지의 ‘대동맥’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파나마운하의 전략적 가치가 치솟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이 중동의 대체재를 찾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아메리카 대륙으로 눈을 돌리면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파나마 운하청은 23일(현지시간) 미국·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후 통행량이 증가해 운항 시간대(통과 슬롯)에 대한 경매 가격이 13만5천달러(약 2억원) 수준에서 전쟁 이후 38만5천달러(약 5억7천만원)로 3배 가까이 상승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6. 4. 24)</p> <p>“미국 에너지 수출 신기록..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대체재 부상’”(KBS, 26. 4. 26)</p> <p>“호르무즈 대신 ‘파나마’로... 전쟁에 몸값 뛰는 미국산 에너지”(연합뉴스, 26. 4. 24)</p>

자료 : 언론종합

자료 : 언론종합

1. 이란 전쟁의 경과(3)_에너지 공급망의 변화

에너지 관련 산업통상부 장관과 밥 맥널리의 코멘트
<p>“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9일 “전쟁이 끝나더라도 비중동산 원유 도입을 확대하고, 수송 루트를 다원화하는 작업을 멈추지 않고 밀어붙일 계획”이라고 밝혔다.(중략) 그는 이를 위해 미국 등 비중동 지역의 원유 도입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는 단순히 공급망 안정을 넘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통상 압력을 완화하는 카드가 될 수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를 문제 삼는 상황에서 미국산 에너지 도입을 늘리는 것은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p> <p>김 장관은 “미국산 경질유는 우리 정유사가 중동산 중질유와 섞어 쓰기에 가장 편한 유종이라고 하더라”며 “중동산 의존도를 낮추는 과정에서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 미국 비중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26. 4. 19)</p> <p>“이란 전쟁이 종식되더라도 전 세계 국가들의 전략 비축유 증대 움직임으로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라피단 에너지그룹의 설립자인 밥 맥널리는 29일(현지시간) “이란 전쟁으로 수십 년간 시장을 지탱해온 미국이 페르시아만 지역의 석유 공급을 항상 보장할 것이란 핵심 가정이 뒤집혔다”고 진단했다. 이에 그는 “각국이 전략 석유 비축량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수 있다”며 “이 경쟁이 석유 가격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p> <p>다만, 맥널리는 구체적인 가격 전망은 제시하지 않았다. 맥널리는 “세계는 에너지 안보에 대한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며 “이 교훈을 바탕으로 한국, 인도, 일본, 중국, 심지어 미국까지 모두 재고를 보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각국은 이번과 같은 악몽이 반복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많은 재고를 보유하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중략) 향후 유가에 대해서는 “안보 프리미엄이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연합인포맥스, 26. 4. 30)</p>

출처 : 언론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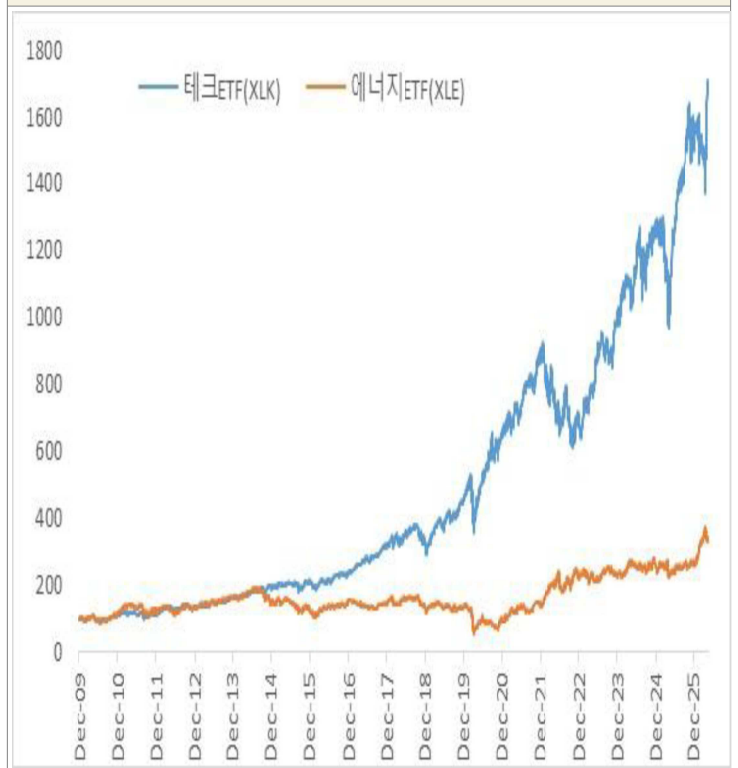
1. 이란 전쟁의 경과(3)_에너지 공급망의 변화

미국 에너지 섹터 VS 테크 섹터(19년 이후)



자료 : 블룸버그

미국 에너지 섹터 VS 테크 섹터(10년 이후)



자료 : 블룸버그

1. 이란 전쟁의 경과(3)_에너지 공급망의 변화

미국 에너지 섹터 VS 테크 섹터(00년 이후)



출처 : 블룸버그

2. 인플레이션의 고착화

일시적 인플레이션

“베센트 미 재무 ‘인플레는 일시적 현상일 뿐’”(연합뉴스, 26. 6. 4)

“미 재무장관 ‘인플레 급등은 일시적 현상.. Fed 진단 반박’”(아시아경제, 26. 6. 4)

“트럼프 ‘훌륭한 고용보고서면 주식은 올라야..’ ‘성장→인플레’ 아냐”(연합인포맥스, 26. 6. 6)

“해식‘이란 전쟁 인플레이션은 일시적 혼란.. 호르무즈만 열리면 돼’”(연합인포맥스, 26. .4. 7)

“백악관 해식 ‘호르무즈 재개방되면 연준 금리 인하 가능’”(연합인포맥스, 26. 4. 11)

자료 : 언론종합

인플레이션 고착화

“국 이사는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인 2%를 웃도는 수준에서 장기간 이어질 경우 물가 상승 압력이 가격과 임금 결정에 고착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조선비즈, 26. 5. 28)

“바 연준 이사, ‘인플레 고착화 위험.. 추가 금리 인하 한참 뒤에나’”(연합인포맥스, 26. 2. 18)

“그(카시카리)는 "인플레이션 기대가 고착화될 위험이 있다"며 공급 충격을 단순히 일시적 현상으로 넘겨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머니투데이, 26. 5. 30)

“국 이사는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인 2%를 웃도는 수준에서 장기간 이어질 경우 물가 상승 압력이 가격과 임금 결정에 고착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조선비즈, 26. 5.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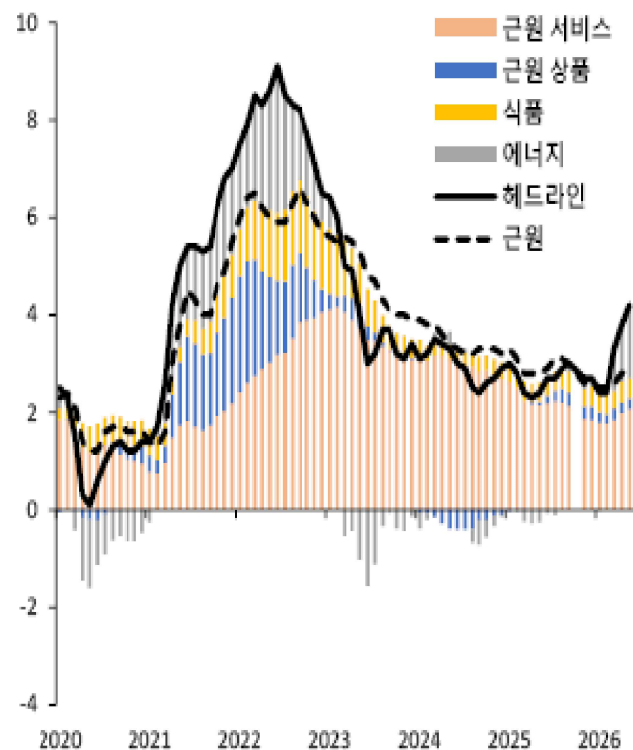
“로건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2% 목표로 돌아가는 데 "너무 오래 걸리고 있다"면서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의 전년 대비 상승률이 4%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목표를 웃도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고착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연합인포맥스, 26. 6. 4)

자료 : 언론종합

2. 인플레이션의 고착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최근 추이와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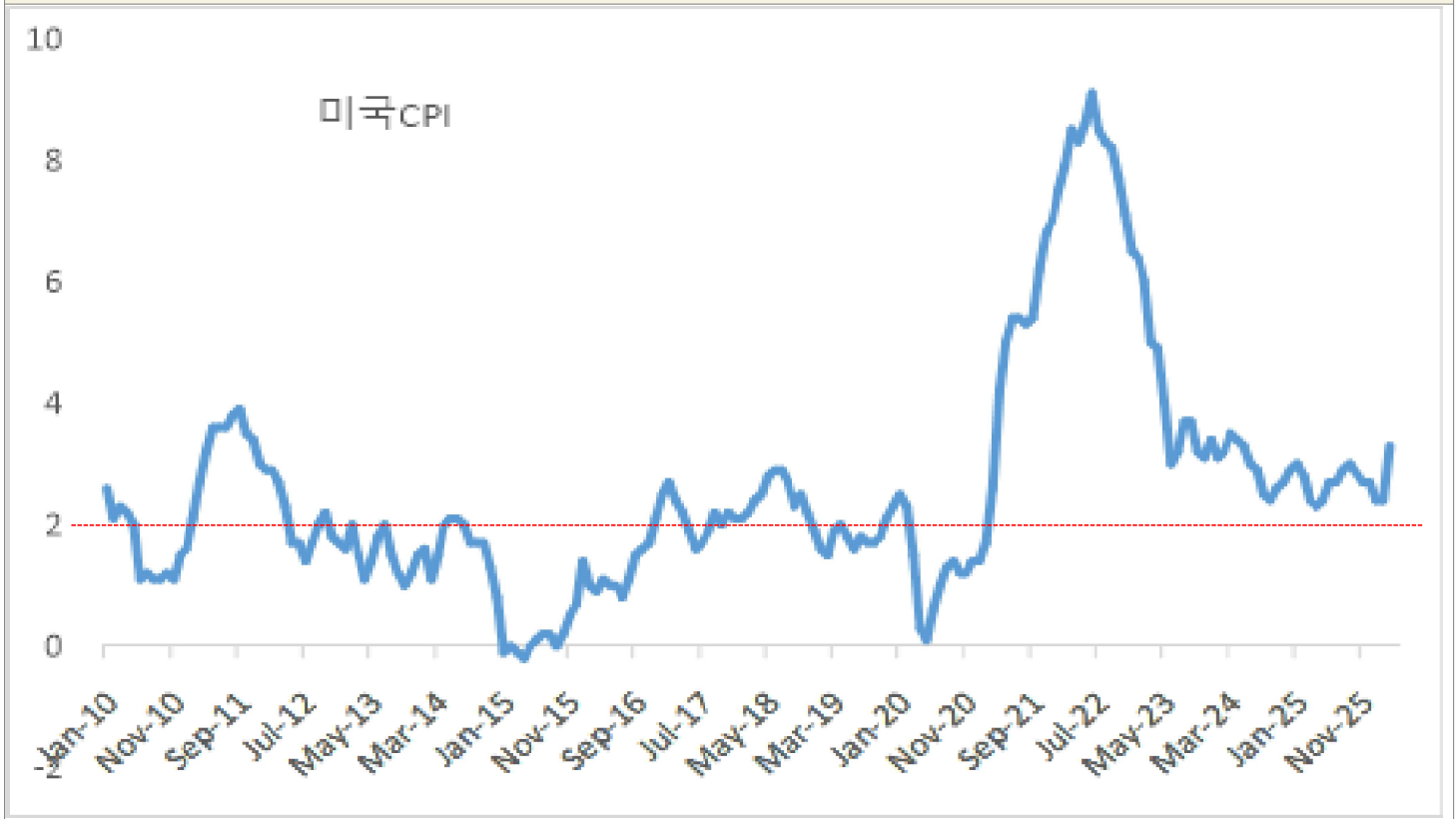
(%)	비중	3월	4월	5월
Headline CPI	100.0	0.9	0.6	0.5
식품	13.5	-0.01	0.5	0.2
에너지	7.5	10.9	3.8	3.9
Core CPI	79.0	0.2	0.4	0.2
상품	18.9	0.1	0.0	-0.1
신차	3.8	0.1	-0.2	-0.3
중고차	2.6	-0.4	0.0	0.1
서비스	60.2	0.2	0.5	0.3
주거서비스	35.2	0.3	0.6	0.3
임대료	7.7	0.2	0.5	0.4
자기주거비	25.8	0.3	0.5	0.3
비주거서비스	28.4	0.3	0.4	0.5
운송서비스	6.4	0.6	0.3	-0.6
의료서비스	6.8	0.01	-0.004	0.5
Supercore 서비스		0.2	0.5	0.3



출처 : 블룸버그, 국제금융센터 재인용

2. 인플레이션의 고착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추이(2010년 이후)



출처 : 블룸버그

2. 인플레이션의 고착화

미국 국채 금리 추이(20년 1월부터)



출처 : 블룸버그

3.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 전환_일본과 유럽

일본은행 금리 인상 시사

일본은행, 연내 금리 두 차례 인상...연말 1.25% 전망

입력 2026.06.10 20:48 수정 2026.06.10 20:52

"6월과 4분기중 금리 인상"경제학자들 예상

GDP 성장 둔화에도 "인플레이와 슈퍼 엔저 타개 시급"



자료 : 한국경제, 26. 6. 10

호주, 유럽, 노르웨이의 금리 인상

"RBA, 기준금리 4.35%하 25bp 인상.. 3차례 연속 인상"(연합인포맥스, 26. 5. 5)

"산유국 노르웨이, 고물가에 금리 인상.. '긴축 도미노' 시작되나"(연합뉴스, 26. 5. 7)

"ECB, 6월 금리 인상 무게.. '전쟁 끝나도 당분간 인플레이'"(연합뉴스, 26. 5. 13)

"유로존 5월 인플레이 3.2%로 높아져.. 11일 3년 만에 금리 인상 가능"(뉴시스, 26. 6.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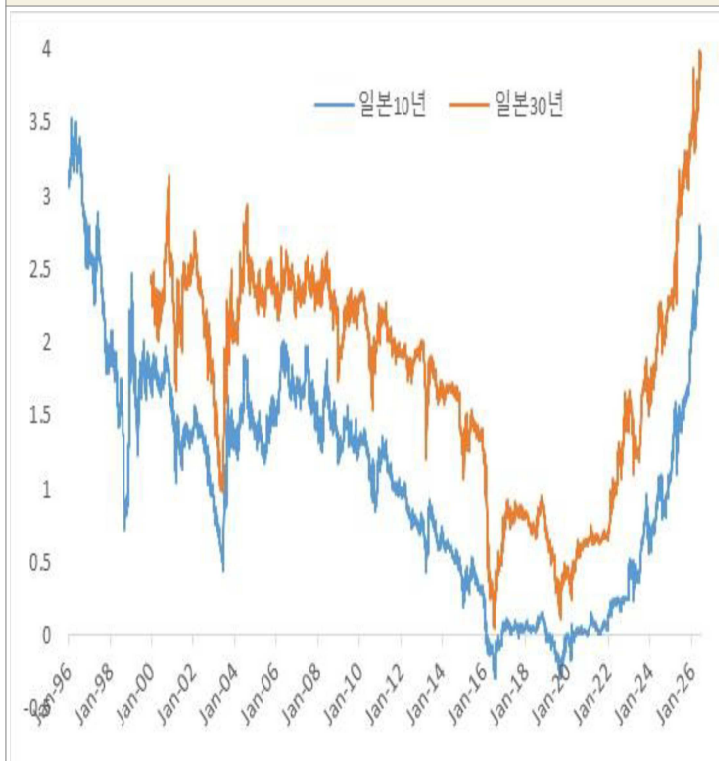
"ECB, 25bp 인상 유력... 시장 관심은 '추가 긴축 여부'"(연합인포맥스, 26. 6. 11)

"코메르츠뱅크, 'ECB, 6월 금리 인상 확실... 9월 추가 긴축 전망'"(SBS Biz, 26. 6. 9)

자료 : 언론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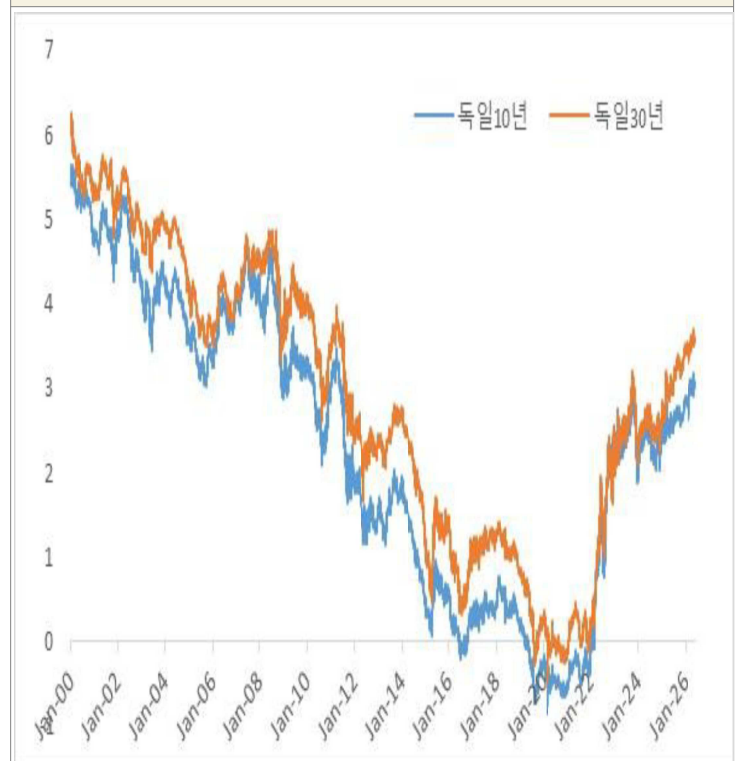
3.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 전환_일본과 유럽

일본 10년과 30년 금리 추이



자료 : 블룸버그

독일 10년과 30년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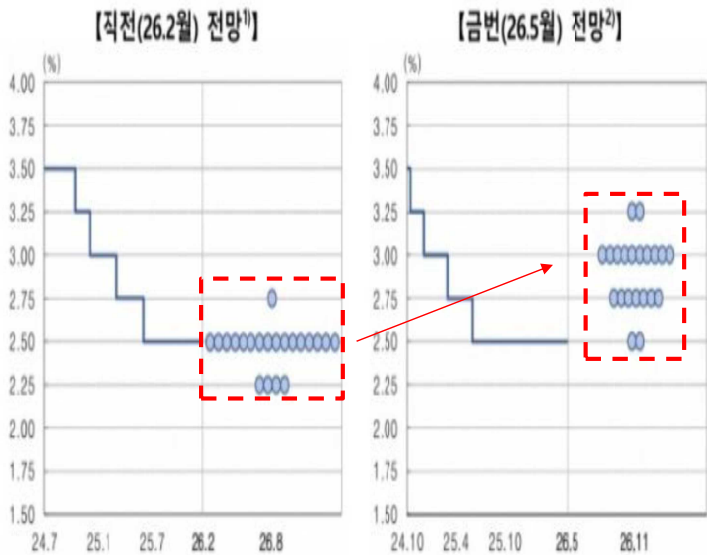


자료 : 블룸버그

3.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 전환_일본과 유럽

K-점도표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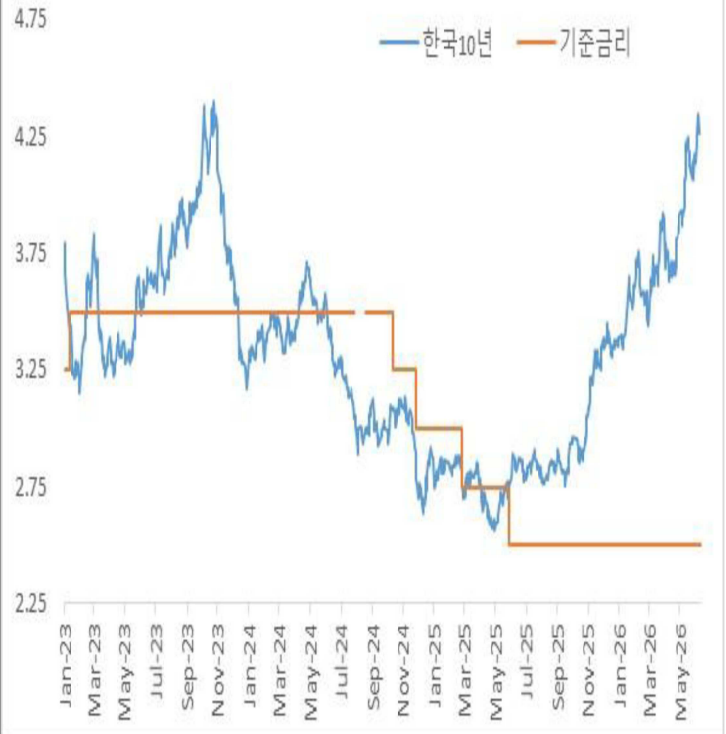
금통위원의 6개월 후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



주: 1) 2026.2월에 제시된 6개월 후 기준금리 전망. 2.75% 1개, 2.50% 16개, 2.25% 4개
 주: 2) 2026.5월에 제시된 6개월 후 기준금리 전망. 3.25% 2개, 3.00% 10개, 2.75% 7개, 2.50% 2개

자료 : 한국은행

한국은행기준금리와 10년 금리



자료 : 블룸버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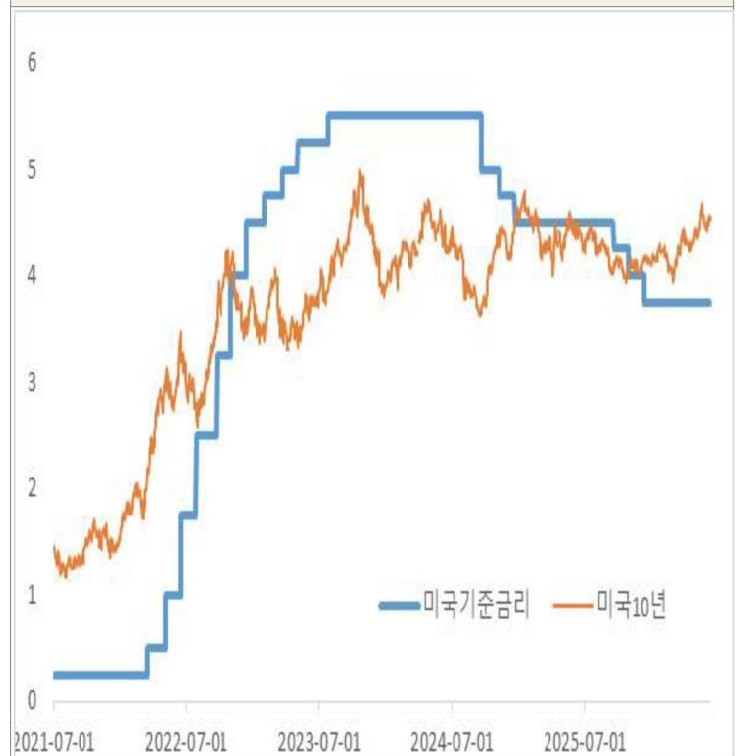
3.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 전환_일본과 유럽

연준 금리 인상 확률

CME FEDWATCH TOOL - CONDITIONAL MEETING PROBABILITIES								
MEETING DATE	300-325	325-350	350-375	375-400	400-425	425-450	450-475	475-500
2026-06-17	0.0%	1.7%	98.3%	0.0%	0.0%	0.0%	0.0%	0.0%
2026-07-29	0.0%	1.5%	88.0%	10.5%	0.0%	0.0%	0.0%	0.0%
2026-09-16	0.0%	1.1%	63.7%	32.3%	3.0%	0.0%	0.0%	0.0%
2026-10-28	0.0%	0.9%	51.2%	38.5%	8.8%	0.6%	0.0%	0.0%
2026-12-09	0.0%	0.5%	32.3%	43.3%	20.0%	3.7%	0.2%	0.0%
2027-01-27	0.0%	0.4%	26.4%	41.3%	24.3%	6.7%	0.9%	0.0%
2027-03-17	0.0%	0.3%	19.4%	37.3%	28.9%	11.4%	2.4%	0.3%
2027-04-28	0.0%	0.3%	16.7%	34.8%	30.0%	13.9%	3.7%	0.6%
2027-06-09	0.0%	0.3%	16.2%	34.2%	30.2%	14.4%	4.0%	0.7%
2027-07-28	0.0%	0.4%	16.4%	34.2%	30.0%	14.2%	4.0%	0.7%
2027-09-15	0.0%	1.7%	17.9%	33.8%	28.7%	13.4%	3.7%	0.6%
2027-10-27	0.2%	2.9%	19.0%	33.5%	27.7%	12.7%	3.5%	0.6%
2027-12-08	0.5%	4.8%	20.7%	32.8%	25.9%	11.6%	3.1%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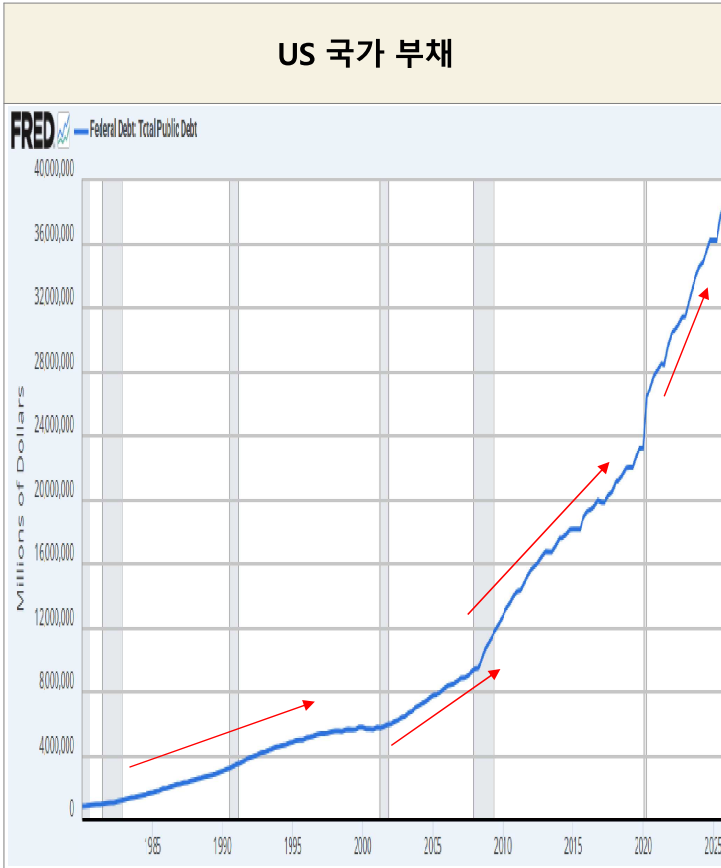
자료 : CME

미국기준금리와 10년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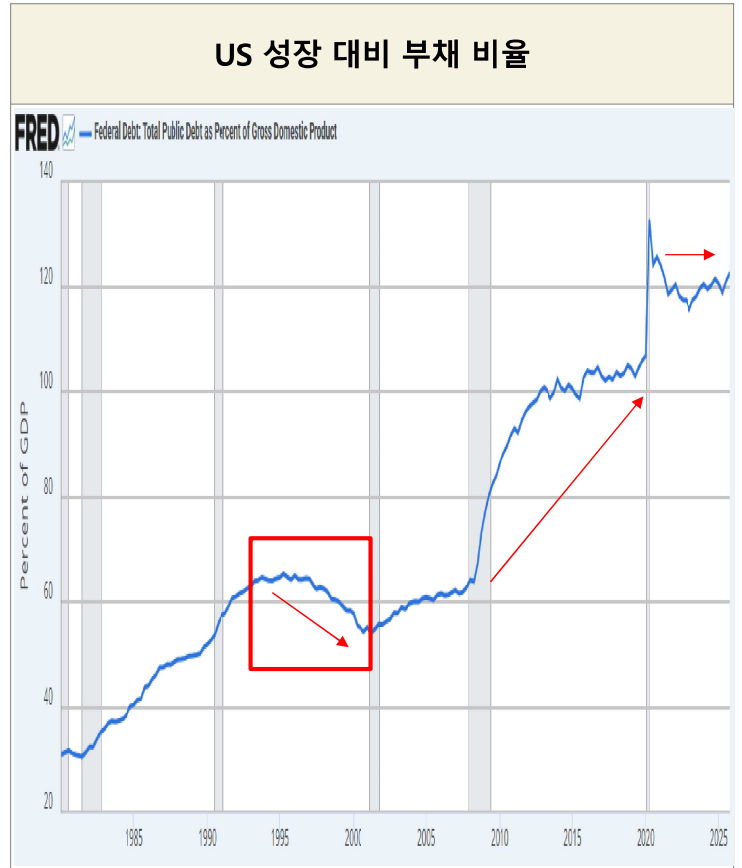


자료 : 블룸버그

4. AI 혁명과 부채의 문제



자료 : Fred



자료 : Fred

4. AI 혁명과 부채의 문제

Again 90's

“트럼프 / 베센트가 ‘그린스펀 같은 사람’ 말하는 까닭”(서울경제, 26. 1. 22)

“AI 생산성 믿는 워시, 제2의 그린스펀이 될 수 있을까”(KPI뉴스, 26. 2. 9)

“미 재무부, ‘AI 혁신 시리즈’ 출범... ‘AI도입안하면 그것이 리스크’”(인공지능신문, 26. 3. 24)

“AI 믿고 금리 내리겠다는 워시”(내일신문, 26. 2. 6)

“베센트 / 워시 한목소리... AI로 여는 ‘노 인플레이 고성장’”(투데이신문, 26. 2. 7)

“그린스펀 닮고 싶은 해셋, ‘미 금리 0.25% 넘는 인하 조치 OK’”(파이낸셜포스트, 25. 12. 10)

자료 : 언론종합

AI 생산성 개선에 대한 의구심

“국금센터 ‘AI투자 확대에 미국 물가 압력 상승.. 통화정책 제약에 유의해야’”(이데일리, 26. 6. 10)

“AI물가 잡을 줄 알았는데.. 미 인플레 키웠다”(EBN, 26. 6. 8)

“AI투자 과열이 물가 자극.. ‘연준 금리 인하 멀어진다’”(뉴시스, 26. 6. 2)

“SF 연은 총재 ‘금리 인상 인하 모두 가능.. AI생산성 효과 아직’”(뉴스1, 26. 6. 5)

“델러스 연은 ‘올해 금리 인상 필요할 수도.. AI생산성 효과 아직’”(뉴스1, 26. 6. 4)

“연준 위원들 ‘AI경제적 비용이 더 빠르게 올 것 같다’”(연합인포맥스, 26. 6. 2)

자료 : 언론종합

4. AI 혁명과 부채의 문제

트럼프 행정부의 금리 인하 의지

"트럼프 '금리 인하해야'.. 워시 첫 FOMC 앞두고 압박"(아시아경제, 26. 6. 7)

"'AI가 인플레를 구원하리라'... 금리 내려도 된다는 워시, 이 그래프가 증거?"(조선일보, 26. 2.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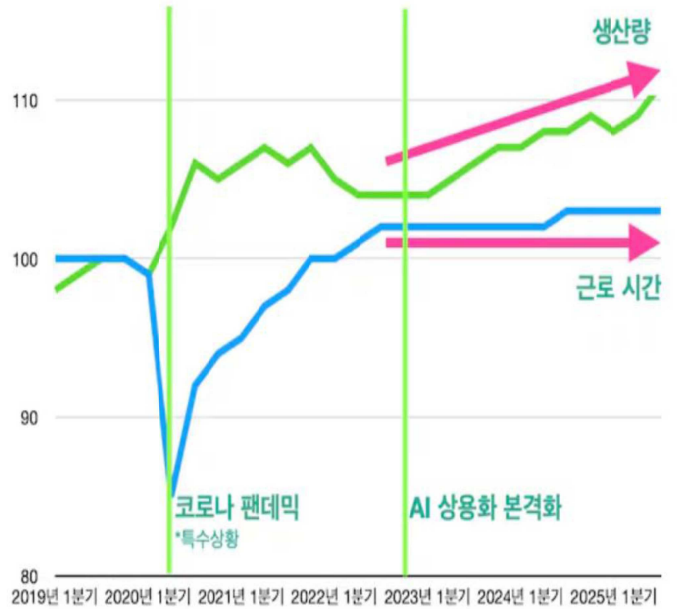
"베센트 / 워시 한목소리... AI로 여는 '노 인플레 고성장'"(투데이신문, 26. 2. 7)

"'워시, 독립적으로 운영하라'던 트럼프.. 우회적 금리 인하 압박"(이데일리, 26. 5. 23)

자료 : 언론종합

높아지는 생산성

미국 기업 근로 시간과 생산량 (2019년 4분기=100)



자료 : 고용통계국, 조선일보 이미지 재인용

4. AI 혁명과 부채의 문제

미국 전자부품 가격 지수

미국 컴퓨터 및 전자부품 가격지수 (단위: %, yoy)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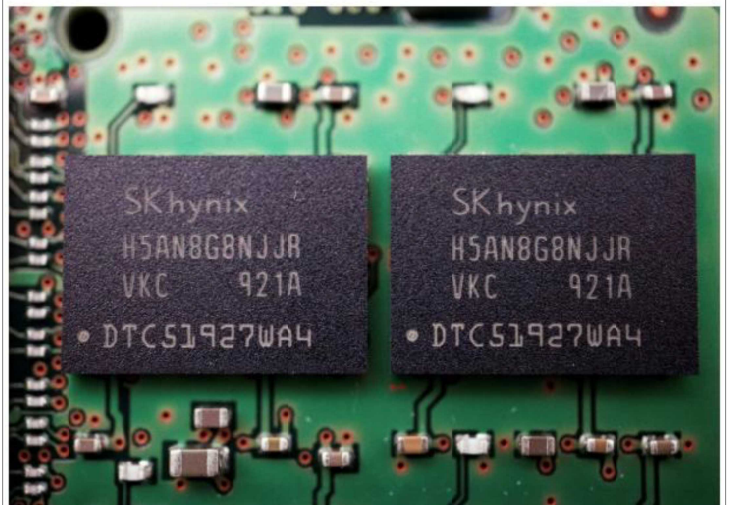
자료 : 내일신문

칩플레이션 언론 보도

모건스탠리 "칩플레이션, 거시경제 문제로 대두" 경고

입력 2026.06.04 00:00 수정 2026.06.04 00:15

- "생산자물가와 기업 마진, 기업 자본 지출 등에 영향"
- "하드웨어 마진, 기기가격에서 인플레이션 정책으로 확산"
- "과거 사이클과 달리 지속적 공급-수요 재조정으로 시간 걸려"



자료 : 한국경제

굴스비 총재의 코멘트(1)

"인공지능(AI)이 가져올 생산성 향상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이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고유가와 만나 물가를 자극해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을 촉발할 수 있다고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연은)의 오스틴 굴스비 총재가 경고했다. 그는 "미래 생산성에 대한 환상(hype)이 클수록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 금리를 더 높여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유가 폭등이나 공급망 교란 같은 단기적 공급 충격을 마주하면 문제는 훨씬 더 악화된다"고 경고했다.

이번 발언은 지난 22일 취임한 케빈 워시 신임 연준의장의 기조를 정면에서 반박한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워시 의장은 AI가 물가를 낮추는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으로 작용해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줄 것이라는 낙관론을 펴고 있다. 1990년대에는 컴퓨터가 본격 보급되면서 예상치 못한 생산성 향상이 이뤄졌고, 당시 미국 경제는 물가 상승 없이 초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굴스비 총재는 지금의 AI 붐은 90년대와 결정적으로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굴스비 총재는 "사람들이 미래의 생산성 향상을 미리 예상하면, 자산 가치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로 인해 실제 생산성 붐이 도래하기도 전에 선제적인 지출(선행 소비 및 투자)을 늘리게 된다"며 "이는 결국 경기 과열과 물가 상승을 유발해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기술 거품 효과는 국경을 넘어 다른 국가의 통화정책에도 연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특히 굴스비 총재는 이란 전쟁 등으로 촉발된 최근의 고유가 상황이 이러한 인플레이션 위험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직면한 단기적인 공급 쇼크(유가 급등, 공급망 교란 등)는 경제 성장을 제약하고 잠재력을 갉아먹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래 생산성 기대감에서 비롯된 인플레이션 문제를 훨씬 더 극단적인 수준으로 악화시킨다"고 강조했다. (뉴스1, 26. 5. 28)

출처 : 언론종합

굴스비 총재의 코멘트(2)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가 6일(현지시간) 인공 지능(AI) 발 생산성 향상에 근거한 조기 금리 인하론을 경고했다. 생산성 향상이 실제로 나타나기 전 시장이 미래 성장 기대를 과도하게 선반영할 경우 오히려 인플레이션과 자산시장 과열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금리를 인상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굴스비 총재는 이날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밀컨연구소 글로벌 콘퍼런스 패널 토론에서 빠른 속도의 생산성 향상에 대한 연방준비제도(Fed)의 대응과 관련해 "생산성 향상이 예상치 못하게 발생했는지, 아니면 앞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지에 크게 달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생산성 향상이 예상치 못하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억제될 가능성이 높아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생산성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이에 따른 추가적인 투자와 지출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어 더 높은 금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략)

그러나 굴스비 총재는 1990년대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그린스핀 의장이 실제 생산성 향상이 데이터에 반영되기 전부터 기술 혁신에 따른 생산성 개선이 기업 이익과 고용 확대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은 자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금리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생산성 향상이 본격화하며 투자와 시장 과열이 커지자 그린스핀은 과도한 낙관을 경고했고 Fed는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중략)

굴스비 총재는 주식 시장의 수익으로 촉발된 소비 지출과 시장 가치 상승에 따른 자본 투자 확대 등을 언급하며, 미래 성장에 대한 가정에 의해 주도되는 경제 활동에 대해 연준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26. 5. 7)

출처 : 언론종합

4. AI 혁명과 부채의 문제

AI 에 대한 연준의 경계감

“시카고 연은 총재 ‘AI생산성 환상에 고유가 겹치면 악성 인플레이’”(뉴스1, 26. 5.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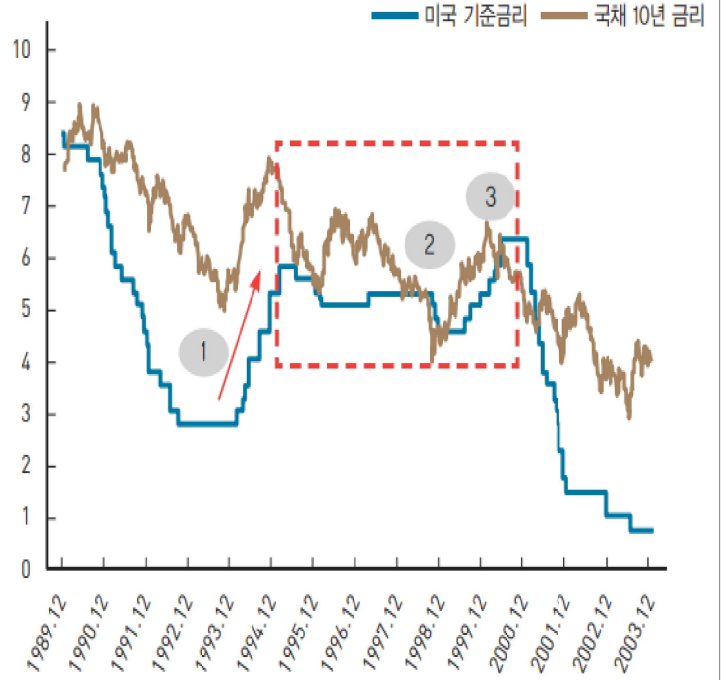
“AI가 물가 잡을 줄 알았는데.. 미 인플레이 키웠다”(EBN, 26. 6. 8)

“샌프란 연은 총재 ‘금리 인상 인하 모두 가능.. AI효과 아직 제한적’”(뉴시스, 26. 6. 5)

“달러스 연은 ‘올해 금리 인상 필요할 수도.. AI생산성 효과 아직’”(뉴스1, 26. 6. 4)

자료 : 언론종합

90년대의 미국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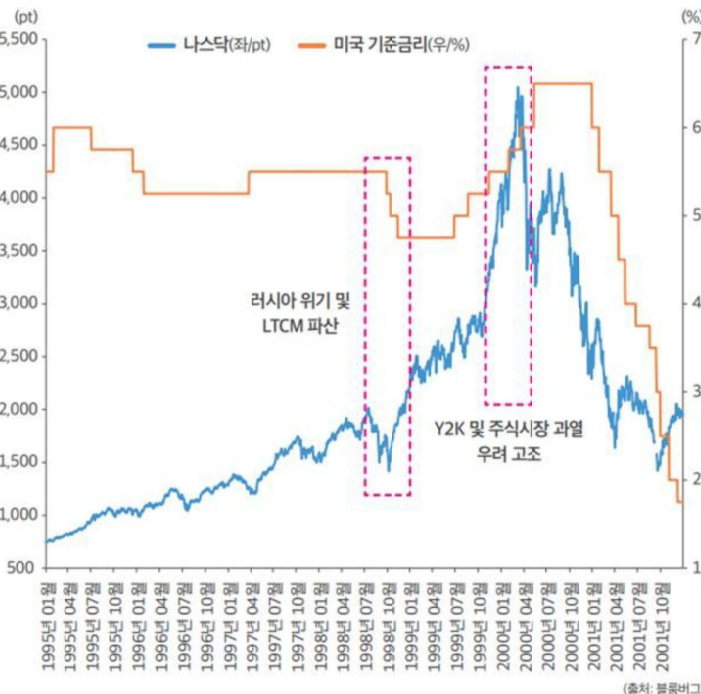


자료 : 블룸버그, 부의 갈림길 재인용

4. AI 혁명과 부채의 문제

나스닥 지수와 미국 기준금리, 그리고 Y2K

그래프 8 나스닥 지수와 미국 기준금리 추이(1995~200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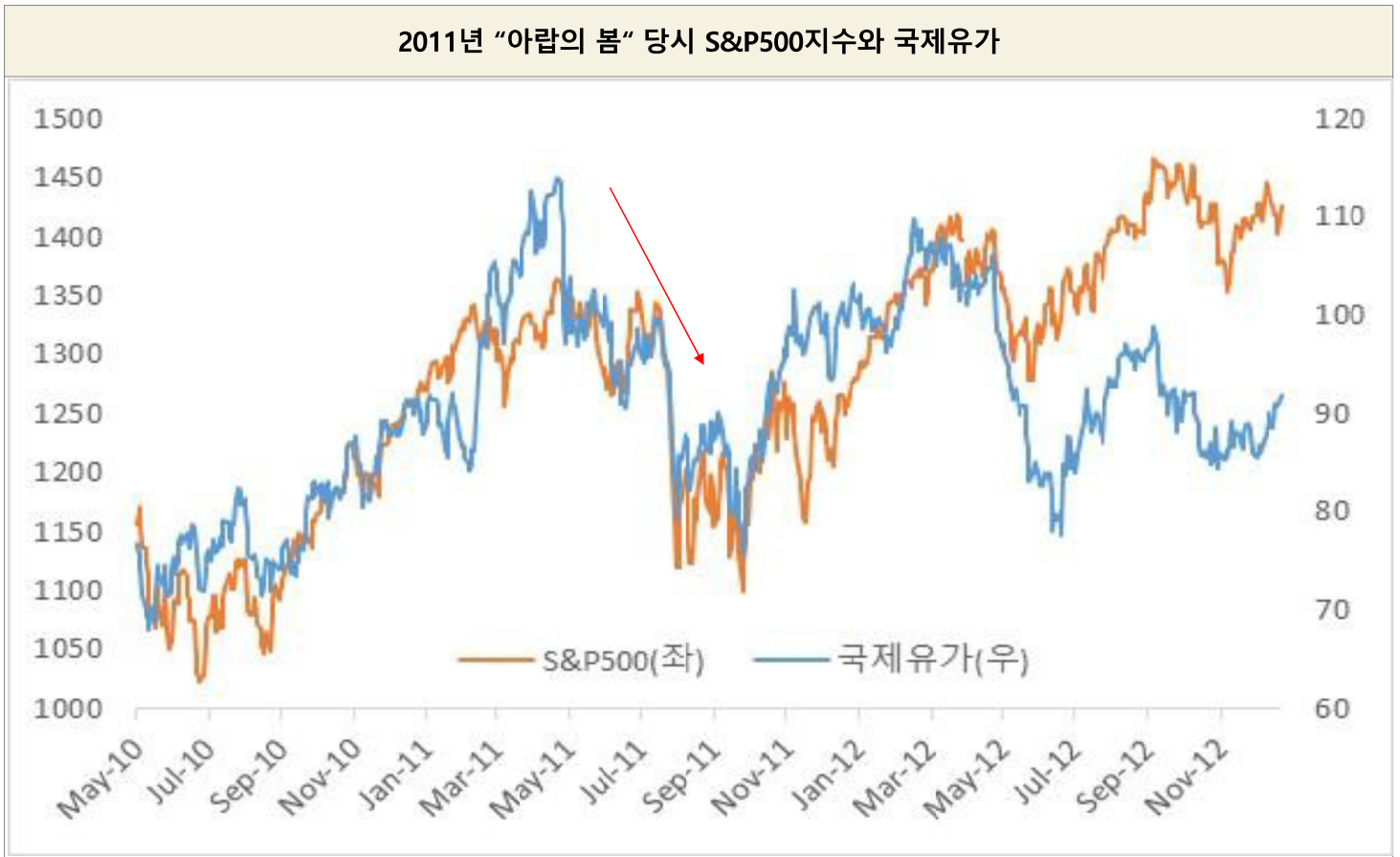


- Y2K 문제, 세계 경제에 심각한 불황 초래할 수도
《연합뉴스》, 1998. 11. 2
- 미 금융기관 99%, Y2K 점검 완료
《연합뉴스》, 1999. 8. 3
- FRB, Y2K로 은행 지급준비금 부족 경고
《연합뉴스》, 1999. 10.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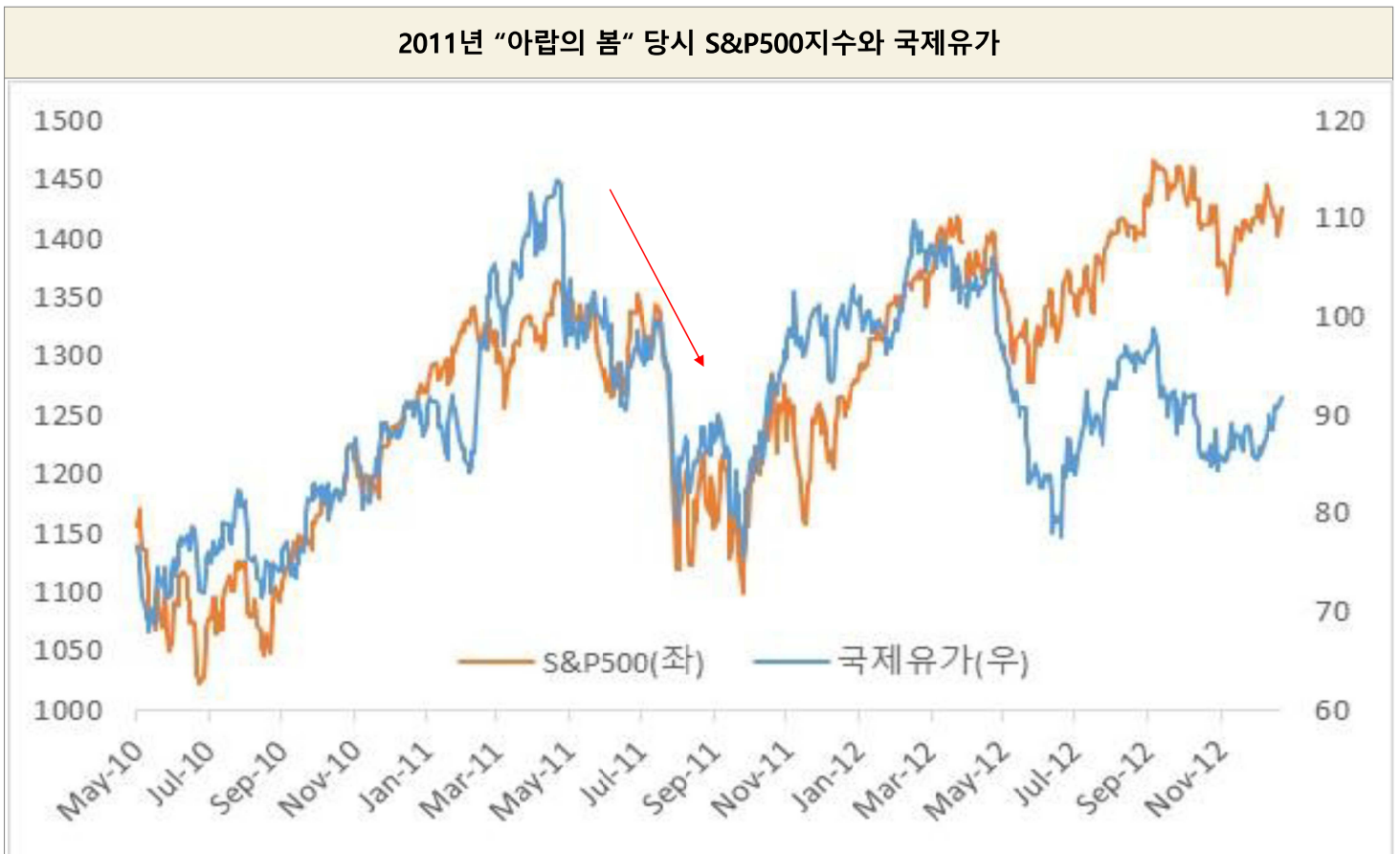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21일 현재 5.50퍼센트인 연방기금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FRB는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비공개 회의가 끝난 후 발표한 짤막한 성명을 통해 현행 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는 한편 컴퓨터의 2000년 연도 인식 오류(Y2K) 문제를 둘러싼 불확실성 때문에 장래 금리 동향을 시사하는 통화 정책 기조를 중립에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마지막 인상했던 은행간 하루짜리 대출금리인 연방기금 금리는 5.50퍼센트, 은행에 대한 FRB의 대출에 적용되는 재할인율은 5.0퍼센트를 유지하게 됐다.
《연합뉴스》, 1999. 12. 22

자료 : 블룸버그, 위기의 역사

5. 금과 채권을 보는 시각



5. 금과 채권을 보는 시각



5. 금과 채권을 보는 시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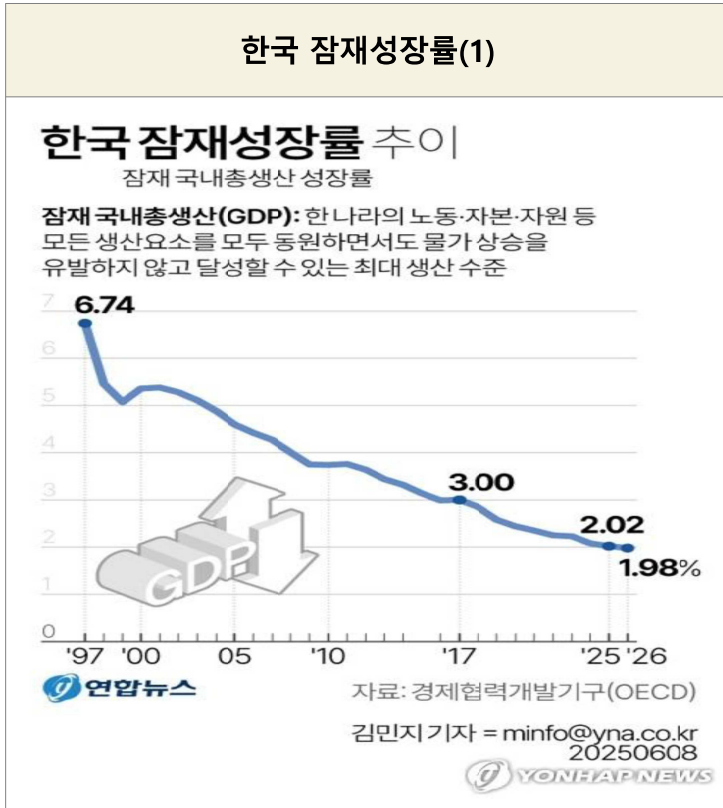
출처 : 블룸버그

6. 한국의 잠재성장률과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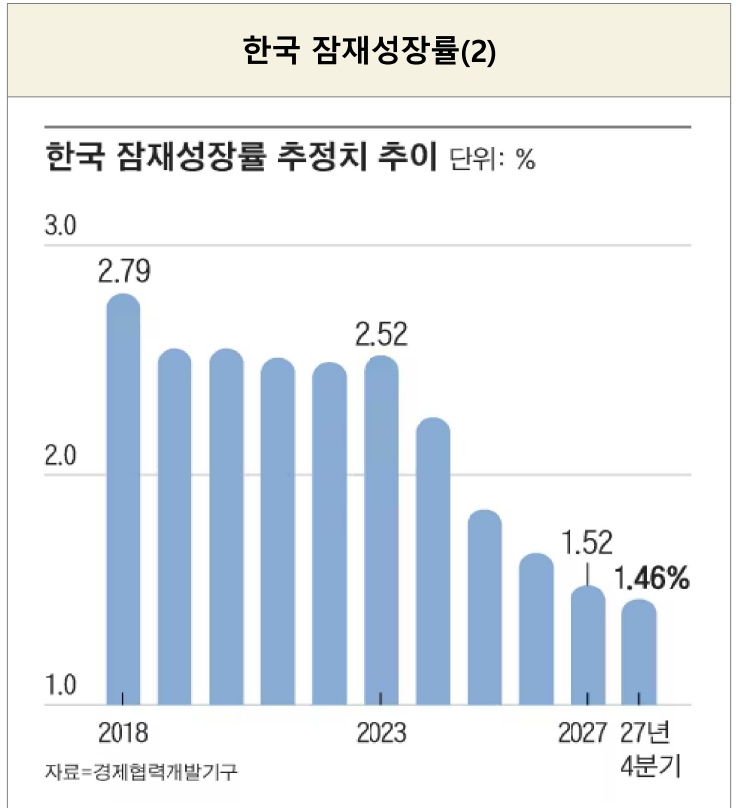


자료 : 블룸버그

6. 한국의 잠재성장률과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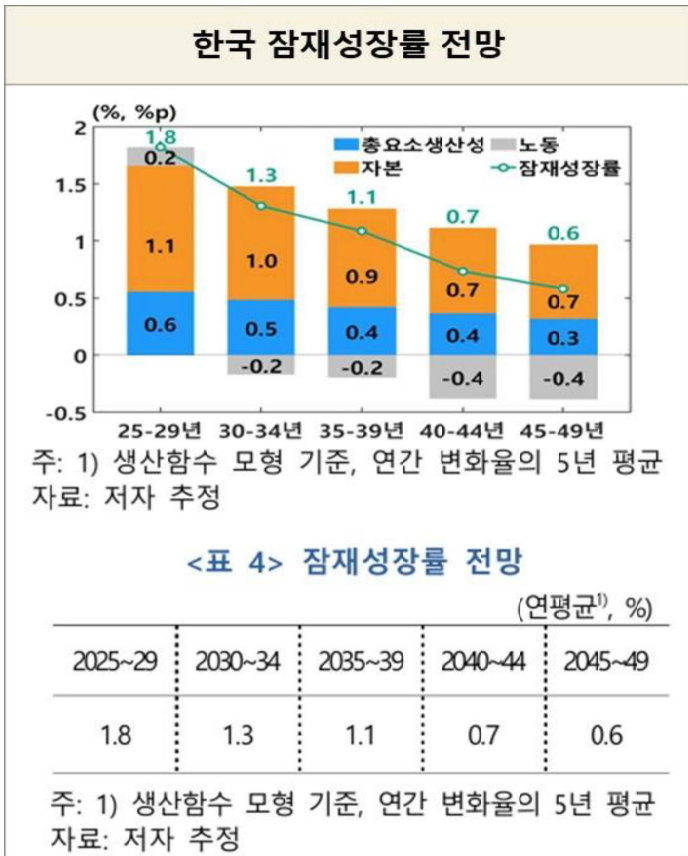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자료: 조선일보(26. 6. 7)

6. 한국의 잠재성장률과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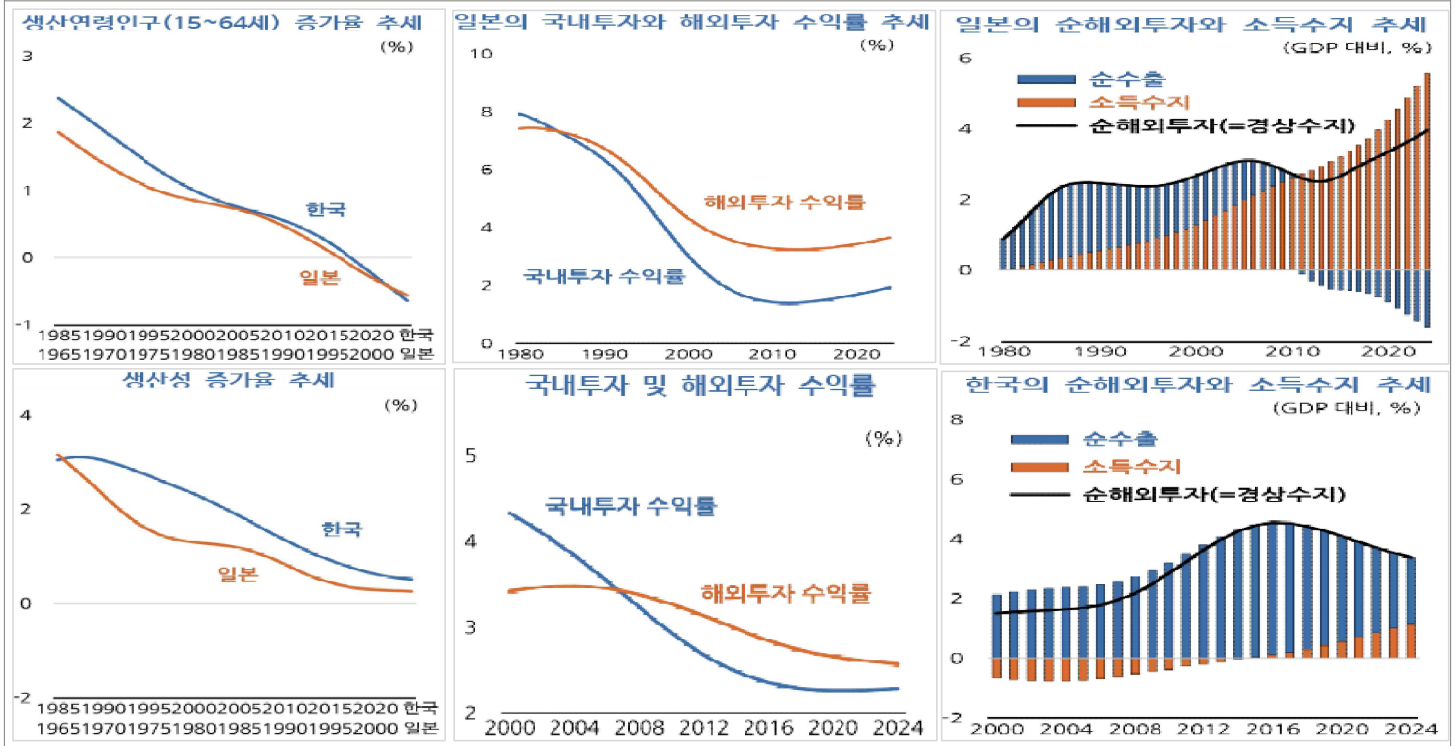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자료: 서울경제

6. 한국의 잠재성장률과 환율

생산성의 하락과 해외 투자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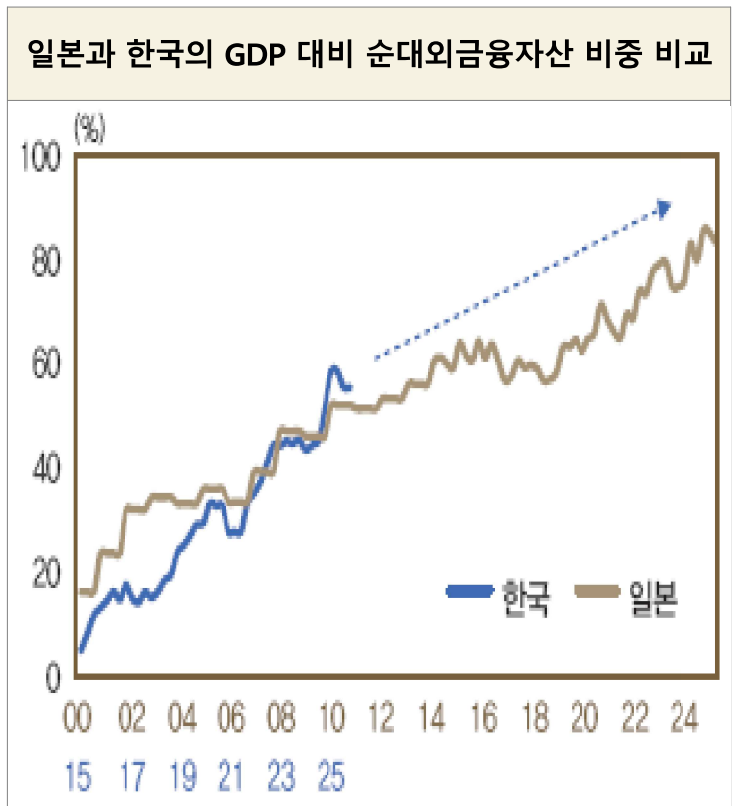


출처 : 해외투자 증가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의(한국개발연구원, 25. 11)

6. 한국의 잠재성장률과 환율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현장에서 보는 생산적금융의 활성화 방향 및 추진사항(사례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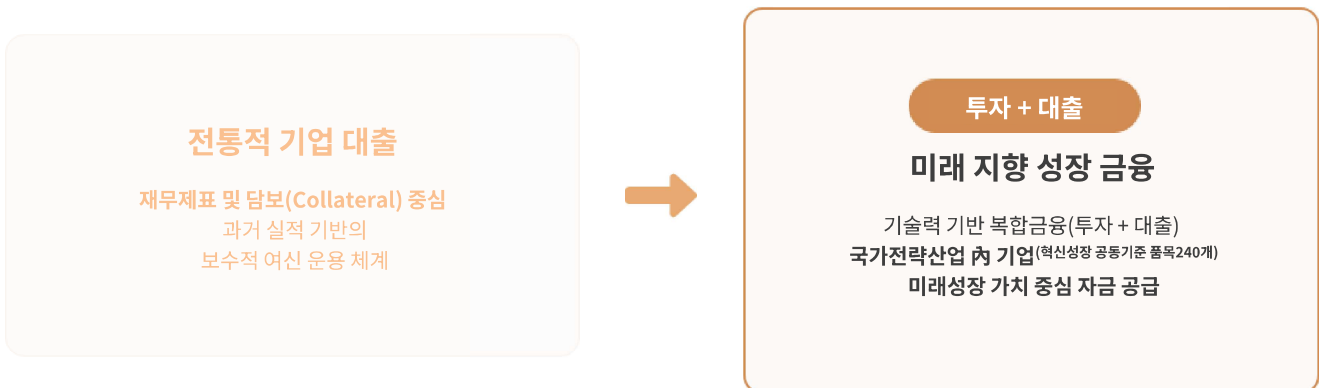
2026. 6. 18 (목)

KB 국민은행 성장금융추진본부 이 종 우

 KB 국민은행

PART I 생산적금융 활성화 방향

대출 중심에서 '성장 가치 투자+대출'로의 전환



PART II 세부 추진사항(사례중심)

단순 자금공급 협약을 넘어 '기업체감형대출+투자+정책 연계협약' 으로 전환

<p>정책금융기관 ↔ 은행 ↔ 수혜기업</p> <p>민관합동 프로젝트 확대</p> <p>정책기관과의 유기적 협약을 통해 R&D기술기업의 자본 문턱을 낮추는 공동 대응 체계 구축</p> <p>예시: 생산적금융 우대프로그램</p>	<p>대기업 ↔ 은행 ↔ 협력사</p> <p>협력사 공급망 생태계 전반 지원</p> <p>대기업과 동반상생협약을 기반으로 소부장 협력사 공급망 생태계 전반에 걸쳐 금융지원 협약</p> <p>예시: 동반성장상생협약 대출, 수출공급망강화보증</p>	<p>투자 ↔ 은행 ↔ 지역 내 기업</p> <p>지역 산업 활성화 투자 확대</p> <p>지방지역 내 대규모 IB 투자금융과 함께, 지역산업 내 기술기업의 기술투자 유도</p> <p>예시: 국민성장펀드 1호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p>
---	---	--

" 생산적금융 대전환을 위한 규제 개선과 구체적 성과 실행은 도전하는 혁신적 기업 관점의 유연한 제도적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

생산적금융으로 대전환, 기업의 모든 순간에 국민이 있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한금융그룹 · 신한은행

생산적금융 대전환

13회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 2026.06.18 (목)

신한은행 생산·포용금융부

정찬희

Copyright © Shinhan Bank. All rights reserved.

PRODUCTIVE
FINANCE
TRANSITION

2026

| Intro

선구안(選球眼)

사전적 정의

야구에서 투수가 던진 공이 볼인지 스트라이크인지 가려내는 타자의 능력

투자·산업 분야에서 유망한 기회나 기업을 알아보는 '안목'으로 비유

Shinhan의 선구안 정의 : 산업과 시장의 흐름을 읽는 마켓 센싱 역량



'선구안(先見)' 은 생산적 금융 대전환 관련 전사적 추진 방향성

| ① 조직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단 — 씨줄&날줄, 그룹사 간 협업 극대화 체계

생산적금융 추진 위원회 중심 4개 분과 × 9개 자회사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위원회		추진단 임원회의			
		사무국 (사무국장·그룹CSO)			
		투자 분과	대출 분과	재무·간접성 분과	포용금융 분과
자회사 별 총괄		[분과장] 운영/총괄 디모그룹장	[분과장] 운영 이신그룹장	[분과장] 그룹 CFO	[분과장] 운영 고객중심선 그룹장
은행	경영지원그룹장	CFO/총괄	역신그룹장	CFO/CRO	경영지원그룹장
카드	경영지원그룹장	경영지원그룹장	영업추진그룹장	CFO/CRO	전핵사업그룹장
증권	경영지원그룹장	CIB그룹장		CFO/CRO	경영지원그룹장
라이프	전략기획그룹장	자산운용그룹장		CFO/CRO	고려혁신그룹장
캐피탈	경영지원그룹장	투자금융그룹장	기업금융그룹장	CFO/CRO	
자산운용	경영지원담당임원	투자담당임원		CFO/CRO	
재주·연병	경영지원담당임원		영업추진담당임원	CFO/CRO	포용금융담당임원
자주·연병	경영지원담당임원		영업추진담당임원	CFO/CRO	포용금융담당임원
벤처투자	경영관리본부장	투자담당임원		CFO/CRO	

① 그룹 통합 거버넌스

생산적 금융 관련 그룹 통합 프로젝트 및 일관된 정책 추진

② 4개 분과 구조

투자·대출·재무·포용 관련 실시간 대응 및 영역별 고도화

③ 매트릭스 체계 (분과×계열사)

매트릭스 체계로 종적/횡적 실행력을 강화하고 계열사 간 중첩 Zero화

② 영업 전략 수립

선구안 M.A.P — 성장산업 길라잡이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 (산업분석 + 마케팅 + 심사)

신한은행
선구안 M.A.P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생산·포용금융부
(2026.03)

1. 산업의 개요 및 전망

첨단 소재·부품, ④ 차세대 전력반도체

- 차세대 전력반도체 시장은 고전압 고속 스위칭 등의 요구를 충족하는 차세대 전력반도체에 따라 SiC와 GaN 반도체는 각각 '30년 기준 103억달러(CAGR 20%), 309억달러(CAGR 34%) 전망
- 국내 시장은 전기차 침투율 증가, 재생에너지 전환, 데이터센터 확대 등으로 수요가 기대되며, 글로벌 기업들의 해외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기술은 아직 성장기 단계에 머물러 있음
- 기술적으로 뛰어난 성능, 유연한 패키징, 낮은 전압, 낮은 온도에 작동 가능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전력 반도체 시장

변화 '25년 기준 글로벌 시장규모는 SiC 40억달러, GaN 9억달러 수준

전망 '25년 기준 글로벌 시장규모는 SiC 40억달러, GaN 9억달러 수준

기술력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내 가시력은 낮은 수준임

산업성장잠재력 Map

2. 선구안 MAP overview

첨단 소재·부품, ④ 차세대 전력반도체

- 기밀성 차세대 전력반도체 프로젝트는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고성능 서버 등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산업에서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는 전력용 SiC, 집적회로(GaN) 기반의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기밀성 차세대 전력반도체 프로젝트는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강력한 기회요인과 핵심 소재의 높은 수입 의존도 및 고전압 고전류 기술 확보라는 위험요인이 공존하고 있음.
- 사업의 단계 'R&D 및 설계 - 인과 및 제조 - 패키징 및 테스트' 등 3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는 고도의 기술 집약력 특성과 대규모 장치 투자에 수반되는 기술 및 자본 집약력 특징을 보인다.

차세대 전력반도체 사업의 사업의 단계와 전략 포인트

1. 소재 및 기판: 한국전력산업개발(전력용 SiC), 한국전력산업개발(전력용 GaN), 한국전력산업개발(전력용 SiC), 한국전력산업개발(전력용 GaN), 한국전력산업개발(전력용 SiC), 한국전력산업개발(전력용 GaN)

2. 설계 및 제조: 한국전력산업개발(전력용 SiC), 한국전력산업개발(전력용 GaN), 한국전력산업개발(전력용 SiC), 한국전력산업개발(전력용 GaN)

3. 패키징 및 응용: 한국전력산업개발(전력용 SiC), 한국전력산업개발(전력용 GaN), 한국전력산업개발(전력용 SiC), 한국전력산업개발(전력용 GaN)

3. 심사 포인트

첨단 소재·부품, ④ 차세대 전력반도체

SiC/GaN 기술 경쟁력과 고객 인증 확보 수준을 통해 기술 상용화 가능성, 공급망 안정성, 생산 설비 구축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회수 가능성과 공급계약 및 주요 고객 확보 여부를 중심으로 매출 실현 가능성을 검토함.

사업의 단계	구분	Check Point	심사요역 판단 프레임
기술 단계 (TRL)	기술성	· 웨이퍼/소자/모듈 등 어느 단계까지 자체 기술력이 확보되었는지	· TRL 7 이상 시, 사업성 확보
	핵심 기술 확보	· 웨이퍼, 웨이퍼 세, MOSFET, 다이오드 등 자체 기술 확보 여부 · 핵심공정 확보, 수급 리스크	· 웨이퍼 수급 확보 가능성 높음 내재적 가능성 높음 · 제조 공정에 대한 이해도 높음 · 고객 확보 가능성 높음
1단계: 소재 및 기판	R&D 기술수립	· 국내 PCT 특허 수, 핵심특허 여부 · 글로벌 전사 특허 확보 가능성	· 특허보유율/특허 대비 실적 실적 · 고객 확보 가능성
	수익 구조	· 향후 2~3년간 CAPEX OPEX 규모 · 장비/소재/인력 투자 계획	· 장비/소재/인력 투자 계획 · 고객 확보 가능성
2단계: 설계 및 제조	기술력	· SiC 소자 설계, 모듈화/패키징, 고효율/고전압/고전류 등 주요 핵심기술 확보 여부 · R&D 투자/개발/제조/테스트/유통/서비스 CF 불완전	· 기술력/개발/제조/테스트/유통/서비스 CF 불완전
	인프라	· MOU / FOC / 공급계약 여부 · 신기술, 내구성, 온도 테스트 통과 여부	· 고객 확보 가능성
3단계: 패키징 및 응용	인프라 확보	· 공판권, 특허 확보 여부	· 고객 확보 가능성
	시장성	· B2B/B2C 시장성 · 양산/대량 생산 가능성	· 고객 확보 가능성

1 표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별 산업생태계 대상

2 산업 분석

산업 현황 - 전망 - 글로벌 확장성 분석

3 선구안 MAP

Value Chain 분석 - Network 분석

4 심사 포인트

사업의 단계별 심사 체크리스트

③ 전략적 마케팅

선구안 Team — 산업별 밸류체인 기반 생산적금융 전략 영업 조직

산업의 흐름을 읽고 미래 유망 산업을 발굴하여 선제적인 금융 지원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미래산업 발굴해서 금융 고객화 '선구안 팀' 신설

생산적 금융 전략 수행 조직인 선구안 팀 신설
'선구안 맵·성장성 신용평가·선구안 팀'으로 이어지는 독...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신문: 2025-03-30 오후 3:31:25
수정: 2025-03-30 오후 3:31:25

신한금융은 산업의 흐름을 읽고 유망 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선구안 맵 → 성장성 신용평가 → 선구안 팀'으로 이어지는 독자적인 실행 체계를 구축했다.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부가가치 창출 전 과정(밸류체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선구안 맵'을 기반으로 유망 기업군과 협력 네트워크를 식별해 마케팅 기회를 도출하는 영업전략을 설계했다. 선구안 팀은 전략영업(RM), 심사역, 산업분석 전문가로 구성된 컨트를 타워로 15대 초혁신산업을 7개 팀으로 재분류해 대상기업 발굴부터 집중 마케팅까지 모든 과정을 총괄한다.

이를 통해 재무제표 중심의 사후 심사에서 벗어나 산업 초기 단계부터 유망 기업과 전·후방 협력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금융 지원과 투자 연계를 통해 산업 전반의 성장 구조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실행 범위를 확대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산업의 흐름을 선제적으로 읽고 과감하게 실행하는 진옥동 회장의 '선구안 중심 경영'이 본격화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① 선구안 Team : 산업 중심의 新영업 체계
선구안 Map 기반, 입체적 / 유기적 / 선제적 솔루션 마케팅 추진

② 선구안 Team 구성 : 실행형 조직 체계
산업RM + 기업여신심사역 + 산업전문가 + Supporter Group

③ 기업생애주기별 특화 솔루션 제공 (CLV Approach)
그룹사업 기반, 기업 Stage별 최적화된 통합 솔루션 제공

③ 선구안 관점의 심사

산업 중심 심사체제로 전환

심사의 기술적 변화가 아니라, 선구안 관점에서 심사 "방식" 전환 시도

산업 중심 심사방식 도입

기준	Before — 기존 심사	After — 산업 중심 심사
심사 기준	재무 (담보·실적·등급)	산업 생태계 + 기술 + 성장성
판단 시점	후행적 (과거 데이터 기반)	선행적 (산업 트렌드·기술 변곡점)
분석 단위	개별 기업 단위	산업 생태계 단위 (Value-Chain)
심사 인력	신용분석 전문가 중심	신용 + 산업·기술 전문가 결합

① 초혁신경제 지원 심사팀 신설

- 신성장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별도 전결권 기반 심사 전문성 및 경쟁력 제고

② 산업 전문 인력 강화

- 선구안 강화 목적의 산업 전문가 채용 및 심사부 배치
- 첨단산업 관련 엔지니어, 애널리스트 등

③ 외부 전문 기관과의 협업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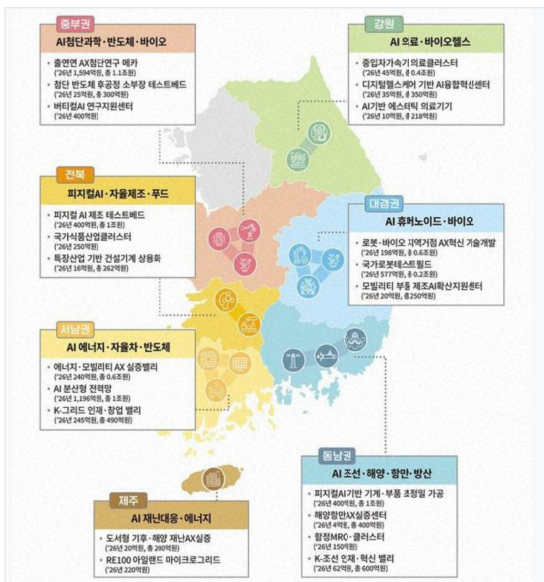
- 연구기관, 학회, 협회 등과의 선구안 강화 협력
- 산업 전문성 기반 마케팅, 심사, 분석 역량 강화

7

④ 지역 산업으로의 확대

SOL클러스터 확대

5급 3특 정책 권역별 신성장산업 분야 영업 Pipe-Line 확대 추진



① SOL클러스터(본점) 국가전략산업 종합 거점

[산업채널형] 수도권 본사·정책기관 접점 발굴

② SOL클러스터(수원) 반도체·첨단제조 핵심 거점

[반도체 공급망형] 앵커기업·협력사·중설수요 공략

③ SOL클러스터(광주) AI융합·에너지전환 선점 거점

[미래 프로젝트형] 정책사업·대형 프로젝트 연계

④ SOL클러스터(부산) 조선·방산·해양MRO 핵심 거점

[산업벨트형] 수주산업 협력사·MRO 반복수요 공략

8

선구안 프로세스 활성화 — 산업 중심 新영업체계 구축

선구안 M.A.P 기반 핵심/우량 생산적 기업 발굴, 선구안 Team으로 실행력 강화



"진옥동 회장 선구안 팀 출범" — 이투데이 ('26.03.30) 그룹 차원에서 생산적 금융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조직과 실행 체계를 동시에 정비

C L O S I N G

생산적금융 대전환 — 기업금융 고도화

감사합니다

NH농협금융 생산적금융 사례 발표



CONTENTS

- I 추진 체계
- II 주요 추진사항 (사례중심)
- III '26년 하반기 준비 중인 사업



I

추진 체계



I 추진 체계

01 5년간 108조원 공급 계획

지역과 산업을 함께 키우는 힘

“ NH 상생성장 프로젝트 ”



‘NH 상생성장 프로젝트’에 108조원 투입... 이찬우 “변화와 혁신으로 성장할 것”

이찬우의 ‘상생성장’ ... NH농협금융, 108조로 지역·혁신 돈길 틈다

NH농협금융, 농식품 펀드 이어 첨단산업에 1조 지원

농식품 넘어 시반도체까지 ... NH농협금융, 모험자본 영토 넓힌다

NH농협은행, 생산적 금융 지원 8.5조원 돌파...미래 성장산업 투자 확대

‘IMA 3번째 사업자’ NH투자증권...모험자본 공급 확대 ‘생산적 금융’ 가속

1.2조 실탄 장전 농협금융, ‘108조 상생 프로젝트’는 현재진행형

⋮

02 그룹 추진 체계

생산적금융 특별위원회

효율적 제자원 배분,
그룹 역량 결집

위원장 금융지주 회장

위원 분과장, 지주 실무부장



03 추진기반 정립

체계

주요 계열사 (지주/은행/증권) 전담조직 신설

자회사 평가에 생산적 / 포용적 금융 항목 신설

리스크관리 고도화 - 생산적금융 위험가중 적용 가이드라인 신설

생산적금융 대상 업종 정비 (첨단전략, 지역특화)

영업점 평가(업적, 수익성) 시 생산적금융 우대 (실적가중 등)

생산적 금융 임직원 면책기준 개선 검토

생산적·포용적 금융 추진 표준화 - 임직원 가이드북 발간

지역별 현장 순회교육 실시, AI 마케팅 기법 개발·전파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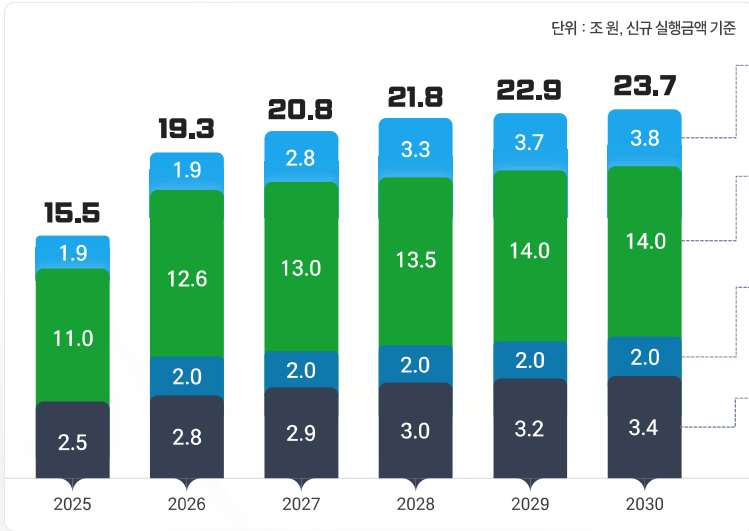
전진

지원

참고 **5개년 세부 추진계획**

분과별 '25년 실적 및 '26~'30년 추진 계획

'26~'30년 합계



- 모험자본·Equity** 15조원
- 투·융자** 68조원
- 국민성장펀드** 10조원
- 포용금융** 15조원

» **총 108조원**

II

**주요 추진 사항
(사례 중심)**



NH 생산적 금융의 3대 축 (Axis)



제 13회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 생산적 금융으로 여는 성장의 통로 -

01 1호 IMA 사업 진출

은행지주회사 최초 IMA 사업인가 획득 ('26.3.18일)

- IMA
- 기후 패키지
- KFood 스케일업
- 지역 밀착

IMA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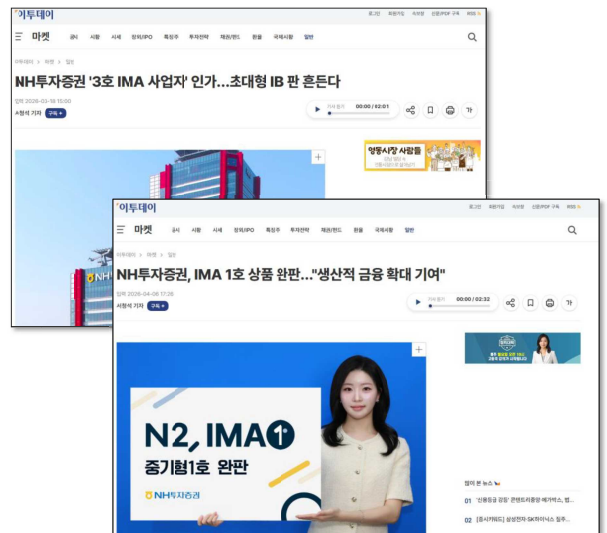
고객 예탁자금을 통합하여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운용하고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실적배당·원금지급형 계좌

- »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사업인가 (금융위)
- » 기업금융 관련 자산 70% 이상 운용 + 부동산 10% 미만으로 운용제한
- » 모험자본 의무 비율 부여 [총자산 중 모험자본 공급액 ÷ (IMA+발행어음 조달자금)]

※ 모험자본 : 중소·중견·벤처기업 발행 증권 및 이에 대한 대출, A등급 이하 채권, VC·신기사·코스닥벤처펀드 출자 및 대출채권, P-CBO매입 등

※ 의무비율 : '26년 10% → '27년 20% → '28년 25%로 단계적 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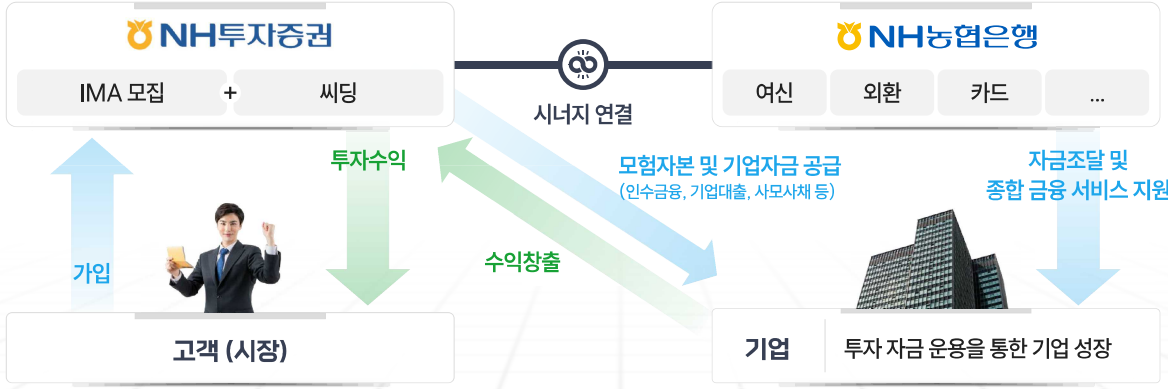
- » 총 3개사 IMA 사업 인가 ▶ H증권, M증권, NH투자증권
 - H증권 5호 ('26.5월) / M증권 3호 ('26.5월) / NH투자증권 2호 ('26.6월) 출시
- » 증권사 총 IMA 조달금액은 약 2.8조원 수준 ('26.3월말 기준)
 - IMA·발행어음 중투사의 '26.1분기 모험자본 공급 규모는 약 9.87조원 (금감원)



제 13회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 생산적 금융으로 여는 성장의 통로 -

1호 IMA 사업 진출

「모험자본 및 자금 공급으로 기업성장 지원 ↔ 고객과 투자수익 공유」를 통한 시장 자금 선순환 기여



IMA 1호 모집 4,000억원 中 약 3,150억원(78.8%) 생산적 금융 투입 완료

‘26.1분기 모험자본 공급액 7,339억원(신규) / 1분기말 모험자본 비율* 31.8%(누적) * 의무비율 10%

2호 기후금융 패키지

기후금융 선도로 산업 전반의 지속가능 전환 가속 + 생산적 금융 외연 확대

규제시장	<p>탄소 배출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실가스배출량이 많은 기업에게 배출 한도 할당 (약 780개기업,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제 발생량과 할당 간 과부족 분(탄소배출권)은 대상 기업 간 거래 가능 <p>» 국내 증권사 최초 「민간 배출권 위탁매매 시스템」 오픈</p> <p>» 할당 대상 기업 43개사 유치완료, 배출권 담보대출 도입 추진중</p>
자발적 시장	<p>탄소 크레딧</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인증 시 크레딧 부여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간기구 검증)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넷제로 상쇄 등을 위해 크레딧 구매 수요 <p>» 임업진흥원 및 농식품부 MOU 체결, 농업부문 크레딧 구매</p> <p>» 축협 연계 농촌 탄소저감 사업기회 발굴 (가축분뇨 활용 바이오차)</p>

NH 기후금융 패키지

철강

자동차

건설

중공업

화학

난방

자재

...

↑ 위탁매매 활성화

NH농협금융

여신 지원

» 농·임산물 생산기업

↓

» 인종 생산물 납품

크레딧 발급 · 증개 지원

» 바이오차 생산기업

전환금융 선도

탄소배출권 거래 · 대출(전환금융) 결합 「기후금융 패키지」 완성도 제고

01 3호 K-Food 스케일업 프로그램

발굴부터 판로 지원까지, 농산업 · 농식품 금융 선도

IMA	발굴부터 판로 지원까지, 농산업 · 농식품 금융 선도		
기후 패키지	투자	여신	지원
KFood 스케일업	<p>농식품 펀드 운용규모 국내 1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UM 4,096억원, 2,478억원 투자 ('26.5월) 은행권 최초 농식품 모태펀드 단독 GP ('25.11월) 은행 내 농식품투자전담 별도부서 운영 중 → '26년 「농식품성장투자단」 명칭변경 및 확대 <p>» 향후 5년간 농식품 펀드 운용규모 최대 1조원까지 확대 목표</p>	<p>농식품 특화 ML모형 운영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식품 기업여신 잔액은 약 30.6조원('26.5월) - 농협은행 전체 기업여신의 약 25.9% 농식품금융 핵심인력 별도 육성, 영업점 및 지역본부 대상 농식품여신 별도 프로모션 실시 <p>» 농식품 신규여신 확대 및 금리우대 · 한도상향 등 지원 강화 추진</p>	<p>농산업 · 농식품 다각적 경영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테크스타트업 창업박람회 개최 - '26.7.15 ~ 17일 / 코엑스홀 (예정) » 청년 · 귀농 농업인 클라우드 펀딩 지원 - 네이버 플랫폼 협업 → '26년 100개 농가 목표 » 농업인 판로지원 프로그램 강화 - 농협몰 등 연계 및 라이브커머스비용지원
지역 밀착	<p>농식품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농업금융 특화 특수금융그룹 역할 수행</p>		

01 4호 5극3특 연계 지역밀착형 금융 확대

지역별 특화 산업 자금공급 확대로 지역균형발전 앞장

IMA	지역별 특화 산업 자금공급 확대로 지역균형발전 앞장	
기후 패키지	<p>NH 생산적 금융</p> <p>첨단전략산업</p> <p>항공우주, 반도체, 디스플레이, AI, 로봇, 바이오 등 첨단산업 전후방 업종</p>	
KFood 스케일업	<p>지역특화산업</p> <p>5개 권역별 (중부 / 서남 / 동남 / 대경 / 전북·강원·제주) 지역경제 영향도가 큰 산업</p>	
지역 밀착	<p>지역밀착 1호, 「동남권 종합지원센터」 개소</p>	

01 4호 5극3특 연계 지역밀착형 금융 확대

IMA

기후 패키지

K-Food 스케일업

지역 밀착

NH투자증권
회사채 발행, IPO 주선, 협력업체 P-CBO발행, 선박금융 STO연구

NH농협은행
기업여신, 외환, 무역금융, 지역 신용보증기금 협약상품 등

NH농협손해보험
선박·적하보험, 기업 일반보험 및 임직원 보험

NH농협캐피탈
관련 산업 및 전후방 연계 산업 기업 여신 지원

NH벤처투자
관련 산업 혁신기업 발굴 및 투자

NH농협금융
기업 맞춤형 One-stop 종합솔루션 제공

동남권 해양 · 항공 · 방위산업에 향후 5년간 10조원 지원 추진

참고 생산적 금융 추진 실적

단위 : 억원, '26.5월말 기준

구분		추진실적	5개년 계획
생산적 금융	모험자본 · Equity 증권 모험자본 공급, VC 및 PE 투자 등	13,740	154,460
	투 · 용자 첨단전략산업, 지역특화산업 대출, 인수금융 및 인프라 대출 등	90,152	676,829
	국민성장펀드 첨단전략산업기금 연계 투자 (직접 · 간접 · 인프라)	3,580	100,000
	소계	107,472	931,289
포용적 금융	취약계층 대출지원, 서민금융상품 실적 등	18,324	153,643
합계		125,796	1,084,932

※ 내부 추진관리 목적 산출기준

Ⅲ

준비 중인 사업



Ⅲ 준비 중인 사업

자금 공급 확대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유상증자**로
신규 투자 · 여신 여력 확보

그룹 **NH상생성장펀드 3호** 조성 추진
(’26.5월 1호 5천억원 / 6월 2호 1천억원)

협력사업 확대
(해양진흥공사, 한국항공우주산업, 신·기보등)

생산적 금융 영역 확장

NH전환금융 운영체계 확립

신재생에너지 밸류체인 지원 강화
(지역 인프라 및 전후방 지역기업)

K-Food 무역금융 활성화 모색
(수출전 운전자금, 수출채권 팩토링 등)

지역밀착 강화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대상
신금융모델 발굴

국민성장펀드 지방 공급 선도
(지자체 · 지역 농업기술원 · 대학 연계)

동남권 후속
지역밀착 프로젝트 런칭 추진

참고

녹색분류체계 기반 전환금융 호

발급 및 추진 완료 건 - 오염수 정화처리 친환경 설비투자 시설자금

• 전환여신 프로모션 추진 및 녹색분류체계 기반 적합성판단 시스템을 활용한 전환금융 사례입니다.

녹색분류체계 기반 전환금융 • 녹색분류체계 기반 전환금융이 되기 위한 기준 충족하여 전환금융 1호로 선정되어 여신 실행

농업	농업 전후방산업	
기업명	(비공개)	
업종	육류 도축업	
주요사업	육류도축 및 가공판매	
NH와의 관계	주체	NH농협은행
	상태	완료
분류 결과 녹색분류체계 기반 전환금융		

전환금융 적정성 확인									
1 적정성 확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background-color: #e0f0e0;">기술</td> <td>정량적인 설비 투자를 통해 전기 사용량 등을 측정하여 분뇨폐기물 및 유기화학물질 관리</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e0f0e0;">효과</td> <td>오염방지시설을 통한 수자원 확보</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e0f0e0;">환경목표</td> <td><input checked="" type="checkbox"/>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e0f0e0;">인정기준</td> <td><input checked="" type="checkbox"/>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기준 준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화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td> </tr> </table>	기술	정량적인 설비 투자를 통해 전기 사용량 등을 측정하여 분뇨폐기물 및 유기화학물질 관리	효과	오염방지시설을 통한 수자원 확보	환경목표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인정기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기준 준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화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기술	정량적인 설비 투자를 통해 전기 사용량 등을 측정하여 분뇨폐기물 및 유기화학물질 관리							
	효과	오염방지시설을 통한 수자원 확보							
	환경목표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인정기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기준 준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화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2 지원 방식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background-color: #e0f0e0;">자금용도</td> <td>시설자금</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e0f0e0;">지원분야</td> <td>오염수 정화처리시설 등 친환경 설비투자</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e0f0e0;">금융상품</td> <td>기업 대출</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e0f0e0;">약정금액</td> <td>(비공개)</td> </tr> </table>	자금용도	시설자금	지원분야	오염수 정화처리시설 등 친환경 설비투자	금융상품	기업 대출	약정금액	(비공개)
	자금용도	시설자금							
	지원분야	오염수 정화처리시설 등 친환경 설비투자							
	금융상품	기업 대출							
약정금액	(비공개)								
의의									
• 축산물 가공 및 유통과정 환경개선 설비 투자 지원 • 고탄소 산업의 탄소감축 로드맵 연계 자금 지원 NH 최초 녹색분류체계 기반 전환금융 사례									

✔ 완료 건

✔ 축산물 유통기업 환경개선 투자 지원 목적 전환금융 실행

참고

전환전략기반 전환금융 호

발급 및 추진 완료 건 - 농업분야 저탄소 스마트팜 신축 시설자금

• 농업경영체 전문컨설팅 서비스 및 저관리 정책자금을 활용한 농협형 전환금융(저탄소 양돈 모델) 사례입니다.

전환전략기반 전환금융으로 추진 • 녹색분류체계 기반 전환금융이 되기 위해서는 인정기준인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5년 또는 만기 이내에 취득해야 하나 자금사용자가 인증에 대한 의사가 없음 (인증 기준이 매우 까다로움)

농업	농가 컨설팅 결합	
기업명	(비공개)	
업종	양돈업	
주요사업	자돈 육성 후 비육돈 판매 스마트팜 운영 (예정)	
NH와의 관계	주체	NH농협은행
	상태	완료
분류 결과 전환전략기반 전환금융		

전환금융 적정성 확인									
1 적정성 확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background-color: #e0f0e0;">기술</td> <td>내부기저재, 자동 환기, 자동 급이·급수, 쿨링시스템, 분뇨처리 순환식 정화방류 시스템 구축 스마트팜 기술 도입 → 돈사 내 사육환경 자동 제어 및 운영 효율 향상</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e0f0e0;">효과</td> <td></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e0f0e0;">환경목표</td> <td><input checked="" type="checkbox"/> 온실가스 감축 <input type="checkbox"/> 오염방지 및 관리</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e0f0e0;">대분류</td> <td><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정 <input type="checkbox"/> 자원·소재 중분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정최적화</td> </tr> </table>	기술	내부기저재, 자동 환기, 자동 급이·급수, 쿨링시스템, 분뇨처리 순환식 정화방류 시스템 구축 스마트팜 기술 도입 → 돈사 내 사육환경 자동 제어 및 운영 효율 향상	효과		환경목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온실가스 감축 <input type="checkbox"/> 오염방지 및 관리	대분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정 <input type="checkbox"/> 자원·소재 중분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정최적화
	기술	내부기저재, 자동 환기, 자동 급이·급수, 쿨링시스템, 분뇨처리 순환식 정화방류 시스템 구축 스마트팜 기술 도입 → 돈사 내 사육환경 자동 제어 및 운영 효율 향상							
	효과								
	환경목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온실가스 감축 <input type="checkbox"/> 오염방지 및 관리							
대분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정 <input type="checkbox"/> 자원·소재 중분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정최적화								
2 지원 방식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background-color: #e0f0e0;">자금용도</td> <td>시설자금</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e0f0e0;">지원 분야</td> <td>스마트팜 증축 공사 투자</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e0f0e0;">금융상품</td> <td>기업 대출</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e0f0e0;">약정금액</td> <td>(비공개)</td> </tr> </table>	자금용도	시설자금	지원 분야	스마트팜 증축 공사 투자	금융상품	기업 대출	약정금액	(비공개)
	자금용도	시설자금							
	지원 분야	스마트팜 증축 공사 투자							
	금융상품	기업 대출							
약정금액	(비공개)								
의의									
① 전력·용수·사료 최적화 → 비육생산성(BSY ¹), PSY ²) 향상 ② 축사 환경 자동제어를 통한 전력 사용 효율 향상 • 농협의 강점과 특수성 활용 저탄소 스마트팜 구축 지원 • 온실가스 감축 & 생산성 향상 동시 도모 NH 최초 전환전략 기반 전환금융 실행 사례									

✔ 완료 건

✔ 전환금융 서류 심사 완료 및 전환금융 실행

1) BSY: Born per Sow per Year (연간 모돈당 총 산자수)
 2) PSY: Piglet per Sow per Year (연간 모돈당 이유두수)

**국가경제 체질개선과 지역균형발전에
농협금융의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제13회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머니 리벨런싱 : 돈의 길을 바꿔라 - 생산적 금융으로 여는 성장의 통로 -

 KB 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

 NH농협금융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BNK 부산은행

 BNK 경남은행

 삼성생명

 한화생명

 NH농협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한화손보

 SGI서울보증

 삼성카드

 롯데카드


 저축은행중앙회

 은행연합회
KOREA FEDERATION OF BANKS

 삼성증권

 KB 증권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true friend 한국투자 증권

 NH투자증권

 원천을 지키는 투자 -
MIRAE ASSET
미래에셋자산운용